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경희한의원
감기 / 성장 / 관절통 / 교통사고

월~토 벨뷰 425-818-8248, 11418 NE 19th St (OL 병원 위)
예약필수 린우드 425-640-7585, 3333 184th St SW (H Mart 옆)

JP INSURANCE 박정연보험
자동차, 사업체 보험, 메디케어

Tacoma 253-228-5295
Federal Way 253-335-3895

JOO FAMILY CLINIC 주 패밀리 클리닉

• 소아진료 • 부인진료 • 보톡스·필러
• 성인진료 • 노인진료

Open Hours
Mon: 9am-6pm
Tue-Fri: 8am-6pm
Sat: 8am-1pm

425.409.9247 kk@joofamilyclinic.com
www.joofamilyclinic.com
22618 Hwy 99, #106 Edmonds, WA 98026 (부한올라자)

THE ONE LOGIS, theonelogisllc.com

하나통운

후회없는 선택, 꼭 비교해 보세요!

워싱턴주 최대 한인운송업체 / 한인이사인력 운영
• 택배 • 이사 • 수·출입운송 • 창고보관 • 자체 통관사 운영

253-872-8181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GOOD DR. CHIROPRACTIC

교통사고 · 디스크 · 만성요통 · 스포츠 상해 · 족관절
두통 · 척추관절 교정 및 전신 통증 치료전문

예약 전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Lynnwood, WA 98036



광역시에틀한인회, 페더럴웨이한인회 공식 인정
지난 20일 광역시에틀한인회관에서 '2025년 정기총회' 개최
김원준 회장과 샘 심 이사장에게 당선증 수여...봉사 비전 공유

광역시에틀한인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페더럴웨이 한인회를 인정하는 의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미주한인회 총연 서북미 연합회 승인을 거쳐 광역 시에틀한인회, 워싱턴-타코마 한인회, 스포캔 한인회에 이은 워싱턴주 내 4번째 한인회로 공식 승인될 전망이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김원준 회장과 샘 심 이사장에게 당선증을 수여 했다. 두 당선자는 한인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 비전을 공유했다. 선관위원들이 김원준 회장과 샘 심 이사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 <관련기사 Page-11>

몽골 직수입 최고급 순모
특상급 명품 쌍봉낙타 순모

Premier Wool
VVIP 고객들의 재구매율 1위제품

타코마: 253.227.8586
페더럴웨이: 253.232.9277
린우드: 206.670.8654

K-beauty
FIND YOUR BEAUTY

화이트 태닝 Red Light Therapy
피부에 조명을 켜다!!

페더럴웨이점 206-670-8654
린우드점 425-561-7866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친절한
김양미 보험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더 잘 맞는 플랜이 있는지 상담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로 예약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립니다.”

다년간 의료
통역 경력

☎ 206-679-8301
✉ getcare8282@gmail.com

메디케어전문
등록기간
10월15일~12월7일

- ✓ Medicare
- ✓ Medicaid
- ✓ Tricare care for life specialist
- ✓ ACA(오바마케어)

Best Choice
REALTY

■ 주택

■ 비즈니스

■ 커머셜

■ 상담환영

살때도, 팔때도!



권미경 부동산

253.335.5301

Managing Broker MiMi Kwon

E: mimibestchoice@gmail.com

www.homesnap.com/Mikyoung-Kwon



권미경부동산



Facebook: Mimi Kwon
Instagram: Mimikwon

Federal Way

\$229,999



2 beds / 2 bath

1층 2베드·2베스 콘도, 퓨젯사운드·산 전망과 커버드 파킹, 계단 없는 편리한 출입.
업그레이드된 가전, 벽난로, 관리 상태 우수하며 교통 접근성 좋은 즉시 입주 가능 매물.

Tacoma

\$550,000



3 beds / 2 bath · 1,582 sqft

잘 관리된 3베드·2베스 램블러, 최신 지붕·A/C·외벽페인트·샤워·바닥 등 주요 업그레이드 완료.
넓은 보너스룸과 로프트, 커버드 데크·큰 마당까지 갖춘 조용한 동네의 즉시 입주 가능 매물.

Federal Way \$849,950



5 beds / 4 bath · 3,390 sqft

Federal Way Christy's Crossings의 잘 관리된 5베드 크래프트맨 주택, 대형 아일랜드·그라나이트 상판의 업그레이드 주방과 넓은 생활 공간, 펜스 친 뒤뜰·2차고까지 갖춘 편리한 입지의 실속 있는 대형 주택.

Bellevue \$2,595,000



4 beds / 3 bath · 3,692 sqft

1920년대 크래프트맨 감성에 맞춘 전면 업그레이드 주택, 화이트옥스 바닥·스테인드글라스·양면 벽난로·프렌치도어 등 클래식 디테일 완비. 호숫가 끝자락의 조용한 위치, 리모델링된 주방과 레이크뷰 프리미엄 주택.

Federal Way \$719,950



3 beds / 3 bath · 1,870 sqft

9피트 천장과 오픈형 거실·가스 벽난로로 넓고 편안한 분위기. 퀴츠 상판, LVP 바닥, 스테인리스 가전, 커버드 파티오·펜스 마당, A/C 포함의 에너지 효율 주택으로 오픈 스페이스 전망이 있는 매물.

Newcastle \$2,479,900



5 beds / 4 bath · 3,244 sqft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Alterra 주택. 메인하우스+별도 게스트 스위트(홈오피스 활용 가능) 포함한 5베드 구조, 고메 키친, 프라이머리 듀얼 워크인 클로젯, 대형 로프트, 커버드 야외공간까지 갖춘 고급 설계의 신축급 매물.

■ Rent ■

Bellevue

\$4,000



5bed, 2.5bath, 2car garage

Puyallup

\$614,950



5 beds / 3 bath · 2,506 sqft

Pending



박 · 쉬나 합동법률사무소

PARK CHENAURY AND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지금 전화하세요

대표전화

253-839-9440

www.parkchenaury.com



김벌리 윤

사무장

24년 이상 경력

253.344.7488



지나 김

사무장

16년 이상 경력

206.498.6040

오피스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사무장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 개인상해

Car Accidents

Personal Injury

법정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능숙한 변호사들!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켜드립니다.

페더럴웨이 오피스:

2505 S 320th St. #100 Federal Way WA 98003
(320가 I-5옆 검은색 유리빌딩 1층)

타코마 오피스:

3517 6th Ave. Tacoma, WA 98406



다솜유치원 신입생 모집안내

수업 월요일 ~ 금요일 **대상** 2.5세 ~ 5세
주소 15405 SE 37th St Bellevue, WA 98006

- 놀이 중심의 다양한 커리큘럼
- 경험 많고 전문적인 교사
- 안정하고 활발한 학습 환경
- 사회적, 정서적, 학문적 발달 지원

문의 206.228.5657 (문자)
dasom.christian.academy@gmail.com

www.dasomacademy.com

WASHINGTON
EDUCATION INSTITUTE

벨뷰 · 이사과
워싱턴 학원

2025~2026
학년도 등록중!
선착순 모집~



권정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 1. 최고의 서비스 Best Service**
한국어 전용 클레임 서비스
- 2. 최저의 보험료 Best Price**
여러 회사와의 비교로 인한 최저 보험료
- 3. 최고의 회사들 Best Companies**
A 급이상 보험회사들로 견적비교



SBI SEATTLE BEST INSURANCE INC
시애틀 베스트 종합보험



대표 권 정

◎ **메디케어 Medicare** 가입기간: 10/15-12/7일
Advantage plans / Supplement / DSNP / PDP (약보험)

◎ **건강보험 / 오바마케어** 가입기간:
11/1/21 ~ 12/15/21

◎ **기독교의료상조회 CMM** 매달가입 가능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보험 | 생명보험

TACOMA OFFICE

9122 SO TACOMA WAY #108 LAKEWOOD, WA 98499
Fax. 253.473.1214
jeonghee@seattlebesti.com

Tel. 253.472.3977

LYNNWOOD OFFICE

18623 HWY 99 SUITE #240 LYNNWOOD, WA 98037
Fax. 425.741.3300
johnkwon@seattlebesti.com

Tel. 425.741.3600



린다 코치마 시의회 의장(오른쪽)이 김재욱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페더럴웨이 경찰국 카일 섬터 부국장.

“한우리정원은 페더럴웨이의 랜드마크”

페더럴웨이시, 지난 18일 시청에서 한인을 위한 제4분기 시정보고회 개최
린다 코치마 시의회 의장, 공사팀장 김재욱 전 한인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페더럴웨이시가 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청 현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제4분기 한인 시정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 재정과 공원·교통·치안 정책, 청소년 봉사활동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번 행사는 린다 코치마 시의회 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코치마 의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선출직 시의원인 현직 시의원”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시와 한인사회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이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원래 데자레 윙클러 공공사업부 부국장도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건설·교통 관련 보고는 제이슨 케네디 선임 교통엔지니어가 대신 맡았다. 또한 짐 페렐 시장은 오리건 캐넌비치로 가족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 참석하지 못했으며, 코치마 의장은 “시장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인 커뮤니티에 각별한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김재욱 전 페더럴웨이 한인회장에게 시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코치마 의장은 “지난 6월 10일 개장한 ‘한우리정원’ 조성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공사팀장 역할을 맡아 전·현직 한인회장들과 함께 큰 역할을 했다”며 “원칙적으로는 한인회에서 시상해야겠지만 한인회장이 공식인 상황이라 시가 대신 감사를 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박수 속에 감사패를 받으며 “한인과 시가 함께 만든 공원이니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 시상은 순서를 뒤로 미루고, 본격적인 부서별 시정보고가 이어졌다. 먼저 사회개발부 키이스 니븐 국장이 단상에 올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 해결에 곤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식량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니븐 국장은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으로 식료품을 충분히 구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며 “시에 거주하는 누구도 배고픔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두 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킹카운티로부터 약 10만 달러의 그랜트를 확보해, 이 가운데 7만 달러를 지역 비영리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식량난 해소를 돕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공모 마감 결과 8개 비영리단체가 총 36만 1천 달러가 넘는 지원을 신청했지만, 예산은 10만 달러에 그쳐 26만 달러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 복지서비스 시민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해 물건개발 프로그램에 2만9천 달러, 물티서비스센터에 4만4천 달러, 사우스 킹 카운티 네이버후드 카운슬에 2만7천 달러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니븐 국장은 “그랜트와는 별도로 시청과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등에 비상식량 모금함을 설치해 상온보관이 가능한 통조림과 건조식품을 모았다”며 “지금까지 2,875파운드의 식료품을 기부받아 시니어센터 등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시청 1층 도넛이전 캔에만 448파운드가 넘는 식량이 모였으며 시민들의 참여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음으로 재무부 스티브 그롬 국장이 2024년도 시 재정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롬 국장은 “매년 워싱턴주 감사원이 실시하는 정기 감사를 올해도 무사히 마쳤다”며 “감사보고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회계연도에 시의 순자산이 약 2,700만 달러 증가했고, 총 수입도 3,000만 달러가 늘었다”며 “현금과 투자자산을 합친 규모는 1억1,400만 달러 수준이며, 부채는 5,300만 달러 증가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153페이지에 달하는 감사보고서를 요약해 소개한 그롬 국장은 “연방정부 인증 기관으로부터 34년 연속 ‘재정 운영 우수 도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재정 현황과 함께 판매세·부동산세 추세도 공유됐다.

판매세 수입은 코로나 이후 한때 감소했으나 최근 5개월 동안 약 2%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세는 카운티가 산정한 평가가치가 평균 1%가량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인플레이션 수준에 비하면 세금 인상 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

했다. 그롬 국장은 “텍스 레이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실질 세부담은 약 0.6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시 예산과 경찰·공공서비스 인건비 등에 미치는 영향, 최근의 이자율 하락 추세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했다.

공원사업부 존 허튼 국장은 한인사회와 인연이 깊은 공원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그는 “올 한 해 부서는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로 오늘 저녁에도 커뮤니티 센터에서 장식을 마치고 오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웃으며 말문을 열었다. 허튼 국장은 한인 동포들과 함께 조성한 ‘한우리 정원’이 완공된 뒤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정원을 둘러보는 시민들 대부분이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고즈넉한 공간이 있는 줄 몰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루비 공원은 산책로와 아스팔트 포장 전면 보수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으며, 312번가 인근에는 약 430만 달러 예산을 들여 공공사업 운영센터 건물을 신축해 각종 자재와 장비,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센터의 라커룸과 수영장 시설도 전면 개보수를 마쳐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허튼 국장은 “부서 직원들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한 덕분에 올해에만 약 350만 달러의 그랜트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320번가 옛 시어스 빌딩 주차장에서 운영한 파머스 마켓도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종합개발계획 업데이트 과정에서 공원·커뮤니티 시설 부문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브룩레이크 및 시립 체육·문화시설의 마스터 플랜도 50% 이상 진척돼 향후 새로운 시설 건립이 현실화되면 시민들이 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북미 월드컵에서 시애틀이 일부 경기를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허튼 국장은 “월드컵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이 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

상돼, 페더럴웨이와 주변 도시들이 교통·안전·관광 안내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근 포트 오브 시애틀 등과 함께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건설국을 대표해 참석한 제이슨 케네디 선임 교통엔지니어가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케네디 엔지니어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꼭 넓게 듣고 있다”며 “오늘 배포한 양면 플라이어에는 영어와 한국어 설명과 함께 설문조사로 연결되는 QR코드가 들어 있으니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320번가 일대 교차로와 램프, 시야 확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제기가 이어졌다.

한 주민은 “아이파크 아파트 건너편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너무 위험하다”며 개선을 요청했고, 다른 주민은 “320번가에서 고속도로 남쪽 방향으로 진입할 때 카풀라인이 신호 없이 열려 있는데, 신호 등이 꺼져 있을 때 일반 차량이 이용해도 되는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또 한 어르신은 “335번가 사거리의 노란 야광 표지봉이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아 차선 인지가 어렵다”며 시인성 개선을 요구했다. 케네디 엔지니어는 “여러분이 제기한 문제는 모두 기록해 검토하겠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 의견도 보내 달라”고 답했다. 이어 경찰국 카일 섬터 부국장

이 치안 상황을 보고했다. 섬터 부국장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페더럴웨이 시의 전반적인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라며 “특히 주거 침입 절도는 약 40%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뉴스가 줄었다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범죄 예방의 첫 번째 책임은 시민 각자에게 있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섬터 부국장은 최근 주변 도시에서 발생한 귀금속 강탈 사례를 소개하며 “주차장이나 쇼핑몰에서 금목걸이, 팔찌 등을 노출하고 다니다가 차량에 접근한 용의자에게 잡지기 빼앗기는 사건이 가끔 발생한다”며 “수상한 차량이 주위를 맴돌면 즉시 거리를 두고, 낯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겨울철 운전 안전과 관련해 “해가 빨리 지고 비가 많이 내리

는 요즘,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위험은 운전”이라며 “속도를 줄이고, 차량 안에서 운전 방해되는 휴대전화 사용이나 기타 방해요소를 줄이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황 국장은 발표를 마치며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연말 되시길 바란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국어로 인사를 전해 박수를 받았다.

부서별 보고가 모두 끝난 뒤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날 시상에는 연방 하원의원 아담 스미스, 주 상원의원 클레어 윌슨, 주 하원의원 크리스틴 리브스의 표창장과 페더럴웨이 시장상, 시애틀 총영사관상, 페더럴웨이 한인회 및 한인단체 연합상이 함께 수여됐다. 진행을 맡은 이구 사무총장과 이재은 교장은 한 명 한 명 학생 이름과 학교, 학년을 호명했고, 수상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 상장을 받은 뒤 시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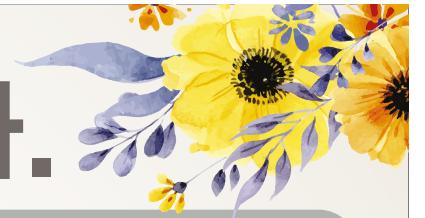
마지막 단체 사진 촬영에서 사회자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봉사의 기쁨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달라”며 “오늘 받은 상장을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고, 힘들 때마다 초심을 떠올리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코치마 의장은 폐회 인사에서 “오늘 여러분께서 직접 들려주신 의견과 질문이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자리는 여러분의 민원과 경험을 시 행정과 시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해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로 올해 마지막 한인 시정보고회를 마무리한 페더럴웨이는 내년 첫 번째 한인 시정보고회를 2026년 3월 19일(목)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인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아담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상: Stella Lee ▲클레어 윌슨 워싱턴주 상원의원상: Leah Choi ▲크리스틴 리브스 워싱턴주 하원의원상: Justin J Oh ▲짐 페렐 시장상: Grace Kim, Hami Lim, Caleb Choi, Siwoo Park, Justin Lim, Subyn McBride ▲주시애틀총영사상: Sohee Lim, Yuna Kim, Ruth Lee ▲페더럴웨이 한인회장상: Eric Ju Choi, Aaron Choi, Claire Ji, Jayden Ji

박재영 기자

조선용 보험 에서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안내 - 지금 확인하세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

■ 메디케어 구성 안내

- 파트 A - 병원/입원 보장
- 파트 B - 외래진료, 검진 등 의료 보장
- 파트 C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파트 A와 B를 민간 보험사가 대신 관리, 추가 혜택 포함 가능)
- 파트 D - 처방약 보장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처방약 플랜 (MAPD)

- ☞ 파트 A, B, D 보장 ☞ 보험료 \$0부터 가능
- ☞ 최대 본인 부담금 도달 후 100% 보장
- ☞ 다양한 보장 수준과 약 코페이
- ▶ 단, 의사 네트워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 서플리먼트 플랜 조합도 선택 가능

■ 보험 등록 기간

- 초기 가입 기간: 65세 생일 기준 전후 3개월 포함 총 7개월
- 연중 가입 기간 (10/15-12/7): 새 플랜 가입 또는 변경,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
- 오픈 가입 기간 (1/1-3/31): 현재 어드벤티지 플랜 변경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전환 가능, 약보험 등록 가능
- 특별 등록 기간: 이사, 퇴직 등 생활 변화 발생 후 2개월 내 변경 가능

■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 약보험 보조 프로그램

- 자격이 된다면 보험료 보조 가능!
- 듀얼 플랜 가입으로 추가 혜택 제공
- 근로소득이 있다면 수입 기준 완화 혜택

■ 가입 전 확인사항

- 주치의, 병원, 약국 계약 여부
- 복용 중인 약이 모두 보장되는지
- 1년간 약값 총 부담금 비교



조선용 보험에서는 메디케어 신청부터
메디케어 비용 보조 프로그램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425-951-9210

(주내과 옆)

4713 168th St SW Ste 103 Lynnwood, WA 98037





풍선으로 장식된 입구.



행사 부스 모습.

"한국 브랜드 35곳, 벨뷰 연말을 밝히다"

시애틀바자르, 'Merry K-risntmas Market' 성황리 개최 12월 18일~21일 총 35개의 한국 및 아시아 브랜드 참여

4일간 벨뷰 팩토리아몰을 가득 채운 한국형 크리스마스 마켓이 올해도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시애틀바자르(Seattle Bazar)가 주최한 'Merry K-risntmas Market 2025'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총 35개의 한국 및 아시아 브랜드가 참여해 패션·뷰티·홈리빙·푸드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약 1만 명 이상이 행사장을 찾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 마켓은 규모 면에서도, 방문객 반응에서도 지난해를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총영사관 후원 명칭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은 첫 행사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방문객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행사의 포문을 연 18일 VIP·인플루언

서 프라이빗 데이는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 10만~40만 팔로워를 지닌 창작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현장에서 언박싱 영상과 리뷰 콘텐츠를 실시간 업로드했고, 일부 영상은 수 시간 만에 수만 회 조회수를 기록해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무료 네일 케어·페이스 페인팅·붓글씨 워크숍과 DJ 그릴의 K-팝 믹스가 진행되며 행사장은 초반부터 축제 분위기로 꾸며졌다.

19일부터는 일반 오픈 일정이 시작되며 행사장은 연일 북볏다.

특히 종이 오너먼트 체험, 풍선 아트 클래스, 한국 전통 붓글씨 체험 등은 아이들과 함께 찾는 가족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가다.

21일 진행된 '풍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클래스는 준비된 좌석이 30분 만에 모두 마감되며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각 브랜드 부스에서도 쉴 새 없이 구매가 이어졌다.

스타일존의 겨울 의류, 하이엔드 핸드백,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뷰티존의 컬러 렌즈와 네일 서비스, 홈리빙존의 DIY 키트와 아트 캔들 등은 연일 매진을 기록했다. 푸드존에서는 떡볶이, 김치, 베이커리, 마카롱 등 한국 맛을 찾는 소비자들 줄이 끊이질 않았다.

행사장 옆 팩토리아몰이 운영한 대형 산타 포토존과 주말 라이브 음악 역시 마켓의 전체적 완성도를 높이며 방문객 만족에 기여했다.

행사 당일, 시애틀바자르 조현진 대표는

본지와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행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먼저 시애틀바자르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시애틀바자르는 한국과 아시아 브랜드를 문화·예술과 결합해 시애틀 시장에 소개하는 통합 마케팅 팝업 에이전시입니다."

이어 이번 행사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총영사관 후원 명칭 승인을 받았다는 건, 저희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와 행사 취지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문화적·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기쁘고, 앞으로도 한국 브랜드를 품격 있게 소개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조 대표는 또 참여 브랜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35개의 한국·아시아 브랜드가 함께 만든 한국형 크리스마스 마켓이 벨뷰에서 하나의 연말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8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운영을 도우며 지역사회 참여가 두드러졌다.

"행사를 함께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커뮤니티와 브랜드가 만나면 이런 에너지가 생긴다"는 자원봉사자들의 소감도 이어졌다.

마켓이 폐막한 후, 시애틀바자르 측은 내년 행사 규모를 한 단계 더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조 대표는 "한국 브랜드뿐 아니라 더 많은 아시아 창작자들이 함께 하는 글로벌 문화 마켓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재영 기자**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스포츠서울USA Sports Seoul SEATTLE

WOMAN'S

MEDIA GROUP CORP.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com



페더럴웨이점 예약문의 : 206-670-8654
예약가능시간 : 화~금/오전 10시~오후 6시, 토/오전 10시~오후 3시
주소 : 2150 S 314th St Federal Way, WA 98003

린우드점 예약문의 : 425-561-7866
예약가능시간 : 화~금/오전 10시~오후 6시, 토/오전 10시~오후 3시
주소 : 18420 33rd Ave W Unit 26, Lynnwood WA

화이트 태닝
Red Light Therapy
피부에 조명을 켜다!!



프리미엄 머신
BEAUTY ANGEL 뷰티엔젤

뷰티엔젤은 햇빛의 일조량으로 환산하면 한여름 맑은 날의 3~4배 강도의 633nm 파장 램프를 이용한 장비로 피부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피부재생 주기**를 빠르게 앞당겨 맑은 피부로 되돌려주는 **노화방지 머신**으로, 이미 유럽에선 **Red Light Therapy**를 여러 피부질환에 사용 중이며, 다양한 스킨케어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파장의 빛을 진피까지 전달해 콜라겐 생성 세포인 섬유아세포(fibroblast)를 자극,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의 생성을 촉진해주고, 염증 매개체인 사이토카인(cytokines)의 생성을 조절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는 **피부질환이나 손상 후 염증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증가시켜 **영양공급과 노폐물 제거를 촉진**해 **피부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세포 성장과 분열을 촉진시켜 **상처 치유 과정을 가속화** 해 상처나 흉터 회복을 도와줍니다.





시애틀 바자르 조현진 대표.



행사 부스 모습.



행사장 음악을 책임진 DJ.



APCC 서인석 이사장의 붓글씨 부스에서 한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 부스 모습.



행사 부스 모습.



행사 부스 모습.



행사 부스 모습.

이영이 보험

- ✓ 곧 65세가 되십니까?
- ✓ 직장보험이 종료 되십니까?
- ✓ 타주에서 이사오셨거나 거주지가 바뀌셨습니까?
- ✓ 파트 D(약보험)으로 Extra Help를 받으십니까?
- ✓ Medicare와 Medicaid를 소지 하셨습니까?

*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스페셜 가입기간에
Medicare Advantage(Part C)나
보충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욱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영이 보험이 여러분의
올바른 메디케어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
상담전문

Licensed Insurance Agent
206.407.8478
206.250.2760
youngyi712@gmail.com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보유





선관위원들이 김원준 회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



선관위원들이 샘 심 신임이사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

광역시애틀한인회, 페더럴웨이한인회 공식 인정

지난 20일 광역시애틀한인회관에서 '2025년 정기총회' 개최 김원준 회장과 샘 심 이사장에게 당선증 수여...봉사 비전 공유

광역시애틀한인회는 지난 22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페더럴웨이 한인회를 정식 한인회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역시애틀한인회는 2025년도 12월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페더럴웨이 한인회를 인정하는 의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미주한인회 총연 서북미 연합회 승인을 거쳐 광역시애틀한인회, 워싱턴-타코마 한인회, 스포캔 한인회에 이은 워싱턴주 내 4번째 한인회로 공식 승인될 전망이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김원준 회장과 샘 심 이사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두 당선자는 한인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 비전을 공유했다. 김원준 회장은 “한인 사회의 통합된 힘을 확인했다”며, “커뮤니티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샘 심 이사장도 “한인회의 다양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번 총회는 한인 사회에 중요한 이정표로 남았으며, 모든 참석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다.

맛있고 푸짐한 런치뷔페! 11 AM - 3 PM

정갈한 맛! 포장(Buffet-to-Go!) \$9.95/파운드

\$19.95

11am~3pm

채식·일반식, 수프, 샐러드, 디저트까지! 픽업 주문 시 무료 디저트 제공!
각종 모임과 오피스 파티 케이터링도 예약 가능! 시간을 절약하세요!

블랙 타이거 새우

킹 연어 필레

버터 치킨

생강 새우 코코넛

양고기 커리

망고 치킨 커리

Call: 253-529-9292

EAST INDIA GRILL

31845 Gateway Boulevard S. Federal Way (Gateway Center Plaza)
■ 영업시간 : 일~목 : 11AM ~ 9PM / 금,토 : 11AM ~ 10PM
■ 홈페이지 : www.eastindiagrillwa.com

DEC 26, 2025 / 1133호 11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창범 회장.

타코마한인회, 'ICE 단속 대처 세미나' 성황

"모든 이민자에게 권리가 있다. 알고 행사해야 한다"

최근 연방 이민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타코마 한인사회가 위기 상황에 스스로 대비하기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타코마한인회(회장 김창범)는 지난 17일 타코마한인회관에서 '이민단속국(ICE) 대처 세미나'를 개최하며 시민권자·영주권자·학생비자·서류 미비자 등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과 실제 단속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 시애틀총영사관 후원으로 열렸으며 이진규·이승영·공유화 변호사, 김주미 생활상담소 소장, 시애틀 항만청 샘 조 커미셔너,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 김지원 담당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승영 변호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무리한 체포 장면로, 임신한 여성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개가 풀려 위협받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것이 더 이상 남의 일도, 특정 인종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한인들도 이미 이런 피해를 보고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당하고 있다"며 "현재의 이민 정책은 무질서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법이 죽은 것은 아니다. 권리를 알고 행사하는 사람만이 부당한 단속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이웃과 나누는 것이 한인 전체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강연의 핵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이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이 변호사는 ICE 요원과 마주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표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I wish to remain silent)",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I want to speak to a lawyer)", "제가 가도 됩니까?(Am I free to go?)", "한국 영사관과 통화하겠습니다(I want to contact the Korean Consulate)" 등을 소개하며 "여러 말을 늘어놓는 순간 불리한 진술이 녹음되어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특히 단속 상황에서는 이름과 주소 외에는 말할 필요가 없으며, 출생지·국적·이민신분을 묻는 질문에는 단호히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배포된 브로셔에는 실제 단속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별 행동요령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ICE가 집 문을 두드렸을 때는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확인해야 하며, 판사의 서명·정확한 주소·체포 대상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영장은 무효이므로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먼저 "제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 자유로운 상태인지 확인하고, 신분 관련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된다.

운전 중 단속이 이뤄져도 차량 밖으로 나올 의무는 없으며, 면허증·보험증·등록증 외의 질문은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구금되었을 때는 어떤 문서에도 선불리 서명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요

청해야 하며, 체포 과정에 불법성이 있을 경우 헤이비어스 소송이나 보석 심리를 통해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승영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단속 상황을 촬영하고, 요원의 이름과 배지 번호를 기록해 두라"며, "이 기록들이 추후 법적 대응에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공항 단속과 관련해서는 시애틀항만청 샘 조 커미셔너가 직접 설명에 나섰다.

그는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은 연방 관할이라 ICE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항만청은 ICE 단속 작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ICE는 주로 입국심사 후 '세컨더리 심사실'에 머무르며 일반 터미널에서 승객을 체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만약 승객이 공항 공개 구역에서 ICE 활동을 목격한다면 항만청에 즉시 신고해 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그는 또 항만청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을 압박하며 협조를 강요하자, 오히려 이를 문제 삼아 연방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공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범죄 경력과 시민권 신청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공유화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과거 모든 범죄 기록을 숨김없이 제출해야 한다"며 "기록 자체보다 기록을 숨기거나 누락한 사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



샘 조 시애틀 항만청 커미셔너.

히 한인사회에서 가장 빈번한 DUI(음주운전)는 워싱턴주 교통국 기록에 사실상 평생 남기 때문에 삭제 불가능하며, 시민권·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의 경우 일정 조건이 되면 기록 삭제가 가능하지만, 집행유예·형 집행·선고 종료 후 일정 기간(3~5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범죄 종류에 따라 삭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노동 신분과 관련해서는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 김지원 담당관이 "워싱턴 주에서는 서류 미비자도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보호받는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고용주가 이민 신분을 이유로 임금을 덜 주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민 신분을 빌미로 직장에서의 위협을 가하거나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명확히 금지되었다. 그는 "이민 문제로 변호사 상담이나 절차가 필요할 경우, 법이 보장하는 유급 병가(Paid Sick & Safe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며 한인들에게 적극적인 신고와 상담을 당부했다.

행사 후반에는 타코마 생활상담소, 한인 변호사협회, KAC 워싱턴 등이 함께 구성한 'Korean American Immigration Task Force'가 소개됐다. 이 단체는 단속 상황 대응, 변호사 연계, 긴급 통역, 가족 연락 등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24시간 한국어 핫라인 1-844-500-3222(NAKASEC)를 운영 중이다. 관계자는 "얼마 전 흙디포 주차장에서 ICE에 체포된 한인을 찾아가 인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 사례도 있다"며 "이민 단속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문제다. 서로 돕고 연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막연한 두려움이 줄었다", "가족 모두와 다시 공부하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강연자들은 마지막으로 "권리를 아는 사람은 살고, 모르는 사람은 당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말하지 말고, 서명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타코마한인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인의 권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이승영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공유화 변호사.



한인생활상담소 김주미 소장.



드림투어
Cruise & Travel
꿈같은 여행을 드림, 드림투어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206-200-3113 페더럴웨이 H마트 건너편
(전화/문자 상담 가능)

TALK 카톡으로 빠른 상담하기
실시간상담
드림투어





최저가 항공권

맛! 항공권이 인터넷보다 싸다!!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 크루즈 ● 항공권 ● 투어 ● VIP의전 ● 연수 ● 버스대절

여성 룸조인 1인

2월26일 출발

아라비아 3개국 크루즈

두바이/아부다비/바레인/카타르


9박 10일

- ▶ 전일정 기항지투어 포함
- ▶ 사막사파리 포함
- ▶ 최신식 대형 선박 탑승
- ▶ 각 지역 전통식, 특식제공

\$3,790

시애틀 왕복 항공,세금포함

5월14일 출발



서지중해 크루즈

바르셀로나(스페인)/팔마데마요르카(스페인)/마르세유(프랑스)
아작시오(프랑스)/산타마르게리타(이탈리아)/제노바(이탈리아)
피렌체(이탈리아)/로마(이탈리아)

10박 11일

- ▶ 바티칸 포함! / NO 옵션
- ▶ 특식제공 / 4성급 호텔 숙박
- ▶ 전일항해 없이 딱찬 일정
- ▶ 이탈리아 로마 벤츠 투어 포함!

\$4,099

시애틀 왕복 항공,세금포함

4월24일 출발

9박 10일



\$2,699 + 항공

동지중해 크루즈 3개국

- ▶ 이탈리아 · 그리스 · 터키 3개국 핵심 일정
- ▶ 산토리니 - 동지중해 대표 인기 기항지
- ▶ 쿠사다시 - 고대 에페소 유적 탐방 가능
- ▶ 카타콜론 - 올림픽 발상지 올림피아 방문
- ▶ 로마 · 나폴리 포함 도시+휴양 완벽 조화 노선
- ▶ 이동 없이 크루즈로 편하게 3개국 여행

2월28일 출발



멕시코 크루즈

로스엔젤레스/로스카보스/마자틀란
푸에르토 비아타/로스엔젤레스

\$999 항공 포함

8월21일 출발




북유럽크루즈

- ▶ 영국/노르웨이/덴마크 대표기항지 포함
- ▶ 런던 시내관광 포함
- ▶ 시애틀->런던 직항 이용

\$3,599 항공 포함

5월3일 출발

9박 10일



여성 룸조인 1인
남성 룸조인 1인

\$4,290 시애틀 왕복 항공,세금포함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바티칸)

서유럽 완전정복

- ▶ 전일정 4성급 호텔 숙박, 모든 옵션 포함
- ▶ 서유럽에서 맛봐야 할 요리, 특식제공
- ▶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 등정
- ▶ 로마 안에 작은 도시 바티칸 시국 관광
- ▶ 이탈리아 로마 벤츠투어 포함!

2월28일 출발

동유럽+발칸 7개국 13박 14일 5/2,18, 6/8/2026 출발

- ▶ 힐슈타트: 호수의 산 풍경이 그림같이 펼쳐진
- ▶ 메주고리에: 보스니아 성모발현지에서 1박
- ▶ 뤼센: 디즈니의 백설공주성으로 알려진 노이슈반슈타인서
- ▶ 부다페스트: 유럽에서 가장 야경이 아름다운, 로맨틱한 다뉴브강 유람선포함

\$3,599 + 항공

5월21일 출발

동유럽 핵심 4개국 8박 9일 5/2, 6/8/2026 출발

\$2,599 + 항공

6월13일 출발

발칸 4개국 8박 9일 5/7,23, 6/13/2026 출발

\$2,599 + 항공

국제 크루즈 연맹 인증 크루즈 전문 여행사 드림투어의 Partner 선사







청매실





330g
홍쌍리 청매실 농축액
\$149.99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3g 정도(차스푼 하나)
 그냥 섭취하거나
 음용수에 희석하여
 꿀이나 기타 감미료를
 혼합한 뒤 섭취

홍쌍리 청매실 농축액은 정성스럽게 재배한 매실을 씨앗 분리기에서 씨를 분리시키고 100% 매실즙만으로 가용성 고형분을 75% 이상으로 고농축 시킨 후 전동용기에서 숙성시킨 제품입니다.

홍쌍리 청매실원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매실을 올리고당과 7:3 비율로 배합하여 50년 이상된 전통 항아리에 넣어 발효 숙성시켜 만든 매실 원액으로서 몸에 이로운 구연산 등 각종 유기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가족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420ml x 2병
홍쌍리 청매실원 선물세트 2호
\$33.95



1.5Lt
홍쌍리 청매실원
\$54.95



420ml
홍쌍리 청매실원
\$19.95

홍쌍리 청매실



300g
젤리골드
\$5.99

홍쌍리 청매실



300g
캔디골드
\$5.99

매실의 효능

- | | |
|-----------------|-------------|
| ● 피로회복 | ● 칼슘 흡수율 증가 |
| ● 체질 개선 | ● 살균, 살충작용 |
| ● 간장보호 및 간기능 향상 | ● 만성 변비 |
| ● 해독작용 | ● 피부 미용 |
| ● 소화불량, 위장장애 해소 | ● 염증 제거 |



2026 달력을 1가정 1부씩 12월 1일(월요일)부터 2500부를 선착순으로 배부합니다.

안락아도 싸게 파는
신신백화점 8726 South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구입문의 월-토: 10AM-7PM / 일: CLOSED
253-582-2975

연말 감사 이벤트

YEAR-END SPECIAL!



짜장면 \$5.99

2025년 12월 31일까지

올해의 마지막은 짜장 한 그릇으로!

비원

Bwon Restaurant

206-651-7780 30919 Pacific Hwy S #1, Federal Way, WA



2025 KOAM-TV 편성표 12월 29일 - 1월 4일

KOAM TV 공개홀 대여가능 (최대 205명) 컴케스트 리미티드 케이블 \$15 - 20 + 코엠 월 \$14.99

		월 (12/29)	화 (12/30)	수 (12/31)	목 (1/1)	금 (1/2)	토 (1/3)	일 (1/4)			
5		KTV 뉴스					KTV 뉴스			5	
6		김익중 목사	종교				종교	향재 교회		6	
7		KTV 뉴스					KTV 뉴스			7	
8		KO-AM 뉴스					기분 좋은 날	세에덴 교회		8	
9	40	명성교회	한사랑교회	원세교회	타코마세일렌에 교회	명성교회	꼭 쉬운 디행이아	기분 좋은 날 (재)		9	
10	20	태양을 삼킨여자					나 혼자 산다 (재)		타코마 침례교회		10
11		기분 좋은 날					라디오 스타 (재)		TV 서프라이즈		11
12		극한 84	남극의 세프 (재)	이 길에는 달이 흐른다	알바로 바캉스 (재)	실화탐사대	내트워크 특선	비디오여행		12	
13		어말차 바다아			농민 뒤편 (재)	전자적 참견 사침 (재)	태미어행 길		13		
14		MBC 뉴스 투데이				KTV 뉴스	구해줘 홈즈	KTV 뉴스		14	
15		KTV 뉴스					MBC 뉴스 투데이	MBC 드라마	농민 뒤편 (재)		15
16		담나는 TV	MBC 드라마				MBC 드라마	MBC 드라마		16	
17		MBC 뉴스 투데이					복면가왕			17	
18		MBC 오늘 저녁					신인감독 김연경			18	
19		태양을 삼킨여자					MBC 뉴스			19	
20		KO-AM 뉴스					담나는 TV			20	
21		MBC 드라마					기분 좋은 날			21	
22		남극의 세프	이 길에는 달이 흐른다	알바로 바캉스	실화탐사대	MBC 드라마	전자적 참견 사침	오늘 아침		22	
23		남극의 세프	PD 수첩	라디오 스타	구해줘 홈즈	나 혼자 산다	오늘 아침			23	
24		기분 좋은 날					오늘 아침			24	
1		오늘 아침								1	
2										2	
3										3	
4										4	

• 방송국 사전에 따라 기금 또는 특별 편성으로 프로그램 편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송국 사정에 따라 긴급 또는 특별 편성으로 프로그램 편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스, 보도 | 교양, 다큐 | 드라마 | 오락 | 특집방송 | 종교

CH 257

comcast 한국어 방송문의: 855-955-1121

KOAM TV 방송문의: 253-946-5537

KOAM 프로그램을 "MOBILE" 에서 만나보세요!

· Xfinity 스트리밍 앱 다운로드 후
KOAM Ch. 257을 찾으세요

· 실시간 시청 가능!



워싱턴주 경제 및 수입예측위원회 데이브 라이크 전무이사가 워싱턴주 경제상황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KSC 시애틀을 정해준 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주 경제, 완만한 성장 속 구조적 변화 가속

총영사관 · KSC, 18일 4분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세미나 개최
주 경제 및 수입예측위원회 데이브 라이크 전무이사 초청

워싱턴주 경제가 고금리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주택시장 구조 변화와 인구 증가 둔화, 재정 구조 전환이라는 중장기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 시애틀을 대한민국총영사관이 지난 18일 KSC(Korea Startup Center)와 공동으로 시애틀총영사관 다목적실에서 개최한 '2025년 4분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와 경제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워싱턴주 경제는 단기적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고용과 수출을 중심으로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 수출 증가, 수입 감소...무역수지 개선
2025년 8월 기준 워싱턴주 수출액은 59억8,22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특히 항공·운송장비 부문이 약 40% 가까이 증가하며 수출 회복을 주도했다. 반면 수입액은 44억5,7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5% 감소해 무역수지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KSC의 초청으로 이날 세미나에서 강연한 워싱턴주 경제 및 수입예측위원회 데이브 라이크 전무이사 겸 수석 이

코노미스트는 "항공우주 및 첨단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쟁력이 여전히 워싱턴 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글로벌 관세 환경과 시장 재편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고용은 정체, 산업별 온도차 뚜렷
2025년 8월 기준 비농업 일자리는 364만 4,900개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항공우주·소프트웨어 부문은 감소세가 이어졌고, 건설 부문은 사실상 정체 상태다. 실업률은 4.5%로 큰 변동은 없으나, 신규 고용 창출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라이크 전무이사는 "워싱턴주 경제는 급격한 침체보다는 '저속 성장' 국면에 있으며 특히 사무실 공실 증가와 상업용 부동산 재편이 향후 고용과 투자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주택시장, 공급·수요 동반 위축 속 가격은 유지
주택시장은 고금리 영향으로 매물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는 '락인(lock-in)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 저금리 모기지 보유자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를 꺼리면서 공급이 제한되고, 동시에 높은 금리로 인해 구매 수요도 제한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2분기 워싱턴주 중위 주택 가격은 67만5,600달러로 전년 대비 0.9% 상승했다.

라이크 전무이사는 "공급과 수요가 모두 낮은 상태에서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정체 안정'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 인구 증가 둔화...그래도 '이동 목적지' 위상 유지
워싱턴주의 인구 증가는 과거보다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내 주요 이주 목적지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향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 미만으로 예상되며, 증가의 상당 부분은 타주 및 해외 유입에 따른 순이동에 의존하고 있다.

라이크 전무이사는 "일자리 증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주는 교육·산업 인프라와 생활 환경 측면에서 매력적인 지역"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AI·첨단 기술 산업이 인구 유입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재정 구조 변화...세수 성장 둔화와 새로운 부담
워싱턴주 재정은 소매판매세, B&O세, 재산세가 핵심 축이지만, 최근 소비 둔



워싱턴주 여성부동산협회 오미아 회장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화로 판매세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급증했던 소비와 세수 효과가 사라지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 확산으로 가스세 수입이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 인프라 재원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라이크 전무이사는 "기술 변화와 정책 전환이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 AI 투자·공공 예산 확대, 새로운 성장 동력
이날 회의에서는 아마존의 500억 달러 규모 AI·데이터센터 투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워싱턴주 학교 AI 보급 계획 등도 주요 화제로 언급됐다.

라이크 전무이사는 "AI 관련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건설·설비 투자

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인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높은 최저임금, 소매 범죄 증가, 물류·유통 비용 상승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그는 "금리 부담과 비용 압박은 단기적 어려움이지만, 감세 정책과 소비 여력 회복이 2026년 이후 점진적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 "급락은 없지만, 빠른 반등도 없다"
종합적으로 라이크 전무이사는 워싱턴주 경제에 대해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낮지만,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대신 AI, 항공우주,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이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영 기자

BUSINESS FOR SALE BY OWNER

SELLER 와 BUYER의 직거래 광고입니다.

<h3>Dry Cleaner</h3> <p>매매가: \$300,000 연매상: \$400,000 렌트: \$5,260 지역: 페더럴웨이 문의: 253-334-9042</p>	<h3>Dry Cleaner</h3> <p>매매가: \$400,000 연매상: \$500,000 렌트: \$6,700 지역: W. Seattle 문의: 206-313-1981</p>	<h3>Dry Cleaner</h3> <p>매매가: \$320,000 연매상: \$420,000 렌트: \$4,500 지역: 커크랜드 문의: 425-647-9005</p>	<h3>Teriyaki</h3> <p>매매가: \$150,000 월매상: \$35,000 렌트: \$4,250 지역: Monroe 문의: 425-273-4357</p>
--	---	---	---

사업체 매매 무료광고 문의: 206.229.6229 / E-mail:4989seattle@gmail.com



식당 매매/렌트/컨설팅

Cell : 253.941.4989

wonlee@metrospi.com



이원규

▶ Business

- | | |
|--------------------|---|
| 1. 테리아끼 | \$160,000 / 렌트 \$2,700
일매상 \$1,800 / Marysville |
| 2. PENDING | \$90,000 / 렌트 \$3,000
일매상 \$1,200 / Lakewood |
| 3. 테리아끼 | \$180,000 / 렌트 \$2,800
일매상 \$1,800 / Everett |
| 4. 테리아끼 | \$160,000 / 렌트 \$3,500
일매상 \$1,800 / Kent |
| 5. SOLD | \$150,000 / 렌트 \$5,300
일매상 \$1,500 / Everett |
| 6. 테리아끼 | \$100,000 / 렌트 \$4,250
일매상 \$1,300 / Monroe |
| 7. 테리아끼 | \$250,000 / 렌트 \$3,800
일매상 \$2,200 / Seattle |
| 8. PENDING | \$180,000 / 렌트 \$3,800
일매상 \$1,800 / Gig Harbor |
| 9. 일본라멘 | \$180,000 / 렌트 \$10,000
일매상 \$3,000 / Kent |
| 10. 중식당 | \$180,000 / 렌트 \$3,700
월매상 \$60,000 / Federal Way |
| 11. 한식당 | \$130,000 / 렌트 \$3,200
월매상 \$60,000 Shoreline |
| 12. PENDING | \$650,000 / 렌트 \$4,700
월매상 \$140,000 / Lakewood |
| 13. 한식당 | \$650,000 / 렌트 \$9,500
월매상 \$120,000 / Bellevue |
| 14. 일식당 | \$650,000 / 렌트 \$10,500
월매상 \$120,000 / Gig Harbor |
| 15. PENDING | \$180,000 / 렌트 5,000
월매상 \$50,000 / Issaquah |

▶ Rental Property

- | | |
|-----|---|
| 16. | 4 Unit \$859,000 / 건평 2,700 Sf
년인컴: \$60,000 / Federal Way |
| 17. | 4 Unit \$899,000 / 건평 3,000 Sf
년인컴: \$42,000 / Federal Way |
| 18. | 4 Unit \$799,950 / 건평 2,700 Sf
년인컴: \$48,000 / Kent |
| 19. | 4 Unit \$980,000 / 건평 3,800 Sf
년인컴: \$58,000 / Seattle |
| 20. | 6 Unit \$1,200,000 / 건평 3,250 Sf
년인컴: \$75,000 / Auburn |
| 21. | 4 Unit \$900,000 / 건평 2,200 Sf
년인컴: \$58,000 / Kent |
| 22. | 8 Unit \$1,725,000 건평 8,300 Sf
년인컴: \$120,000 / Kent |
| 23. | 4 Unit \$1,300,000 건평 3,800 Sf
년인컴 \$71,000 / Lynnwood |
| 24. | 6 Unit \$1,900,000 / 건평 6,000 Sf
년인컴 \$100,000 / Everett |
| 25. | 6 Unit \$1,450,000 건평 5,000 Sf
년인컴 \$70,000 / Tacoma |

▶ Lease

- | | |
|--------------------|--|
| 26. PENDING | 건평 1,900 sf / 렌트 \$8,000
문달은 식당 / Mill Creek |
| 27. 커피숍 | 건평 1,180 Sf 렌트 \$6,200
문달은 커피숍 / Mill Creek |
| 28. 식당 | 건평 3,000sf / 렌트 \$8,000
단독건물 햄버거 / Bremerton |
| 29. 일식당 | 일식당 건평 2,000 Sf 렌트 \$5,000
문달은 일식당 / Des Moines |
| 30. 식당 | 건평 1,260 Sf / 렌트 \$5,700
미국식당 시설완비 / Queen Anne |

K-Food Franchise

프랜차이즈 창업 E2 투자자 모집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가 샘 조 위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가 샘 조 위원.

시애틀-부산-울산, '그린 쉬핑 회랑' 공식 출범

지난 11월 5일 시애틀항 본부에서 그린 쉬핑 회랑 구축 5자 MOU 체결 한·미 항만 협력 새 장 열어...샘 조, "지속가능한 글로벌 무역 출발점"

대한민국과 미국을 잇는 해상 물류의 미래가 본격적으로 친환경 전환의 길로 들어섰다. 시애틀항(Port of Seattle), 타코마항(Port of Tacoma),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11월 5일 시애틀항 본부에서 '그린 쉬핑 회랑(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을 공식화하는 5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은 3년에 걸친 공동 연구와 국제 논의를 기반으로 완성된 것으로, 한·미 항만 협력이 새로운 이정표를 맞이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이날 서명식에는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이 직접 방미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시애틀

항만청을 대표해 샘 조 항만위원이 협력의 의미를 설명했다. 샘 조 위원은 환영사에서 "한국의 소중한 파트너들을 시애틀에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MOU는 단순한 서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무역 체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양국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시애틀항 항만위원장이던 샘 조 위원은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 겸 기후 특사와 함께 '그린 쉬핑 챌린지(Green Shipping Challenge)'를 공식 발표했

으며, 이후 다섯 기관은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pre-feasibility study)를 진행하며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MOU는 앞으로 ▲해상 탄소 배출 저감 인프라 구축 ▲무탄소·저탄소 연료 전략 정립 ▲연료 저장 및 병커링 확대 ▲안전·규제 체계 조정 ▲항만 디지털화 ▲데이터 교환과 모범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진행됨을 명시하고 있다. 시애틀항-타코마항으로 구성된 노스웨스트 시포트 얼라이언스(NWSA) 역시 이번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 물류 혁신을 견인할 전망이다. 샘 조 위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개인적 소회도 전했다. 그는 "한국에

서 이민 온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다"며 "미국이라는 고향과 대한민국이라는 뿌리를 연결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큰 영광이자 특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미래의 항만(Port of the Future)'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항만의 비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협력이 환경 보호뿐 아니라 경제 성장, 공급망 강화, 미래 산업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출 저감을 넘어 항만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며 "더 깨끗하고 더 스마트하며 더 회복력 있는 글로벌 무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 일정은 APEC 정상회의 이후 한·미 통상 협의 상황을 고려해 다소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체결식에는 항만 관계자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며 샘 조 위원은 "한국 파트너들의 리더십과 우정, 그리고 변함없는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운 이 토대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제 물류의 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양국 항만이 공동의 기후 대응과 물류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코대 + 코끝	350 만원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휴함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미주위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ONDemand KOREA
TV Box

우리쿨리 Kooli



합법적으로 미주 No.1
한국방송 시청하세요.

미국 내 최다 시청 ODK TV Box!
이제 거실에서 간편하게 TV로 보세요

고화질! 저렴한 가격! 무약정! 무료렌탈!

최다 채널 보유, 실시간 서비스, 스마트폰/패드/PC에서도 이용 가능.

\$19⁹⁹/월



ODK BOX

FREE

최대 합법 IPTV 한국 방송
지금 1년 서비스 구매하시면
\$100 Smart TV BOX 무료!
온디맨드 프리미엄 멤버십 무료!

ODK BOX 단말기 증정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ODK BOX 서비스를 통해 한국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선 전용 단말기가 필요한데, 단말기는 \$100에 구매하거나, \$50 보증금을 맡기고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에는 1년 구독하시는 분에 한해 **\$100 상당 전용 단말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년 서비스 사용료 또한 240불에서 180불로 할인**해드립니다.

ODK BOX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ODK BOX는 셋톱 박스로, 아무런 종류의 TV에 기기만 연결하면, 모든 ODK 콘텐츠를 큰화면에서 리모콘으로 더욱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ODK BOX만의 특별한 혜택

최신/구작 다시보기 + 실시간 + 100개 채널제공
무약정 / 단말기 무료렌탈
All in One(티비,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시청 가능)
온디맨드코리아 PREMIUM 멤버십 제공(동시 시청 최대 5명)

ODK BOX CARE +

친절한 한국어 기술지원, 설치 안내 및 상담, 단말기 무상교체, 안심케어

린 우 드 : 253-230-7928 (정관장 린우드)
에드몬즈 : 425-773-3525 (Ace Life USA)
페더럴웨이 : 253-232-9277 (K-Beauty)
타 코 마 : 425-760-1773 (OTA World)
벨 뷰 : 425-760-1773 (OTA World)

우린 거실에서 편안하게
티비로!
우리쿨리 Kooli

+

나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ONDemand KOREA
PREMIUM Membership

"워싱턴주가 살기 좋다" 캘리포니아 · 뉴욕 떠난 미국인들, 워싱턴주로 몰렸다

- ▶ 아틀라스 밴 라인즈 분석, 워싱턴주 전입 비율 전국 7위
- ▶ 높은 주거비와 모기지 금리에도 이주 수요 지속
- ▶ 생활양식과 가족 중심 이주 결정 경향 두드러져



워싱턴주가 2025년 미국 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주 목적지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사 업체 아틀라스 밴 라인즈 (Atlas Van Lines)의 주간 이동 분석에 따르면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전입 비율이 가장 높은 주 7위에 올랐다. ◆ 시애틀 생활비 높아도 여전히 매력적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아틀라스 밴 라인즈가 처리한 10만 7,000건의 이사를 분석한 결과다. 워싱턴주는 시애틀 지역의 높은 생활비, 제한된 주택 공급, 침체된 고용 시장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에게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

턴주 재무관리국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워싱턴주 인구 증가의 78%가 타 지역에서의 이주로 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인 인구 성장 속도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다른 주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입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아칸소, 아이다호, 노스캐롤라이나 순이었으며, 워싱턴주는 이들 급성장 지역에 이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루이지애나주는 2년 연속 전출 비율이 가장 높은 주로 기록됐고, 웨스트버지니아와 와이오밍이 그 뒤를 이었다. ◆ 전국적 이동 감소 속 워싱턴 선방 고물가 지역으

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에서는 전출이 여전히 전입보다 많았지만 전출 규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의 인구 유입은 미국 전역에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동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높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로 인해 미국인들의 이사가 크게 줄었으며, 이사를 할 경우 월 주거비가 중간값 기준으로 73%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은 더 낮은 물가, 더 나은 일자리, 기후 안정성, 가족과의 근접성 등을 주요 동기로 꼽았

다. 또한 이들은 고학력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디에틀랜틱의 요니 아펠바움이 올해 보도했다. ◆ 생활양식 우선하는 이주 트렌드 아틀라스 월드 그룹의 잭 그리핀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모기지 금리가 안정되면서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

지만, 이사를 결정하는 이유가 생활양식과 가족 중심의 결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또 다른 이사 업체인 유나이티드 밴 라인즈(United Van Lines)도 매년 초 자체 이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이주 데이터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MEDIA GROUP CORP.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com

당신은 늘 가족을 돌봐왔습니다
사전 준비의 선물을 전하세요.

제공하는서비스

화장서비스
전통장례방식
3개의예배당
관
유골함

장례식화환
서비스프로그램
대형묘소
정원같은묘지
음식제공서비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Sung Yun(윤성근) - 253-334-8834

Sung.Yun@NSMG.com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을 이용해보세요!



만성 질환 수술

더이상 불편함을 참지 마시고 치료 하세요!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휴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치질
(1~3일)

자궁
(2~6일)

유방
(2~5일)

척추
(1~5일)

편도선
(1~5일)

담낭용종(담석)
(2~4일)

요실금
(2~4일)

갑상선
(3~4일)

관절(어깨, 무릎, 고관절등)
(3~14일)

암수술
(5~14일)

탈장
(2~3일)

난소
(2~3일)

전립선
(1~14일)

하지정맥류
(1~3일)

※ ()입원기간 표기 ;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 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서울부민병원(가양역)

강남병원(기흥역)

H+양지병원(신림역)

세란병원(독립문역)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휴람의료네트워크병원은 휴람 고객을 최우선으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오전 4시간 49만원 ~ 110만원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65만원 ~ 110만원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14시 ~ 명일 12시경 퇴원 115만원 ~ 186만원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10만원 ~ 320만원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2일간 진행(오전에만 검사 시행) 462만원 ~ 485만원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H+양지병원(신림역)
세란병원(독립문역) 안산한도병원(선부역)
광동병원[양방&한방](봉은사역)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공항 검색대에서 걸릴 수 있는 11가지 물품

겨울 폭풍, 기계적 결함, 항공편 지연 등 여행 중에는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지만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여행객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내 수하물 포장 방식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2일 전했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가방 속 물품에 따라 추가 검색이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다.

샌드위치, 고기, 소스, 딥 등 음식류는 거의 항상 추가 검색 대상이 된다. 특히 땅콩버터처럼 바를 수 있는 음식은 액체·젤 규정(3.4온스 이하)에 해당해

압수될 가능성이 높다. 고형 음식도 폭발물 검사 절차로 인해 가방에서 꺼내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장난감인 플레이도우, 연말 선물로 인기 있는 양초, 보습용 로션, 물티슈, 커피나 요리에 쓰는 말린 콩, 여러 권이 겹쳐진 책 등도 X-ray 화면에서 성분이나 형태가 불분명해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스노우볼은 크기가 테니스공보다 크면 액체 규정에 걸려 기내 반입이 불가하다. 특히 총기류는 기내 수하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가방

에 넣었다가 적발될 경우 체포 및 항공편 결항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TSA는 올해부터 리얼 ID 규정을 본격 적용해, 규격에 맞는 신분증이나 여권이 없을 경우 추가 검색으로 통과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TSA는 출발 전 공식 웹사이트의 'What Can I Bring' 안내를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보내거나 목적지 도착 후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사소해 보이는 준비 하나가 공항에서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조이시애틀뉴스>



시애틀 다운타운 경전철 4개 역, 이번 주말 두 차례 운행 중단

- ▶ 토요일 밤 11시-일요일 새벽 1시, 일요일 오전 5시30분-10시30분 두 차례 폐쇄
- ▶ 2026년 5월 레이크 워싱턴 횡단 경전철 개통 앞두고 자동 열차 보호 시스템 설치
- ▶ 이스트사이드 2호선, 다음 주부터 I-90 통해 호수 횡단 주간 연습 운행 시작

시애틀 다운타운의 경전철 4개 역이 이번 주말 신호 개선 작업을 위해 두 차례 일시 폐쇄된다.

사운드 트랜짓이 2026년 레이크 워싱턴 횡단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웨스트레이크, 심포니, 파이오니어 스퀘어, 인터내셔널 디스트릭트/차이나타운 역 밖 거리에서 셔틀버스가 열차를 대체한다.

운행 중단 시간은 토요일 밤 11시부터 일요일 새벽 1시까지, 그리고 다시 일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다. ◆ 1호선은 계속 운행...15분 간격 작업 기간 동안 경전철 1호선은 린우드 시티 센터와 캐피톨 힐 역

사이, 그리고 다운타운 남쪽 스타디움과 페더럴웨이 다운타운 역 사이에서 15분 간격으로 계속 운행된다. 다우 콘스탄틴 사운드 트랜짓 CEO는 20일 다음 주 초 이스트사이드 2호선 열차 운전자들이 사우스 벨뷰와 시애틀 사이 I-90을 통해 레이크 워싱턴을 횡단하는 빈번한 연습 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이 수상 교량에서 주간에 정기적으로 열차를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테스트는 야간에 이뤄졌다. ◆ 자동 열차 보호 시스템 설치 이번 주말 작업팀은 열차가 너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자동 열차

보호(ATP)" 시스템 신호 장비를 설치한다. 2009년 이후 운전자들은 다운타운 지하에서 각 열차가 자체 구간에서 머물도록 하기 위해 교통 신호만 따르는 것에 의존했다.

하지만 2호선이 호수를 횡단하면 이 열차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린우드-페더럴웨이 1호선과 선로를 공유하게 된다.

그러면 바쁜 시간대에 인터내셔널 디스트릭트/차이나타운 역과 북쪽 지점 사이에 4~5분마다 열차가 다운타운에 도착한다.

열차가 이렇게 빈번하면 ATP의 추가 안전 마진이 더욱 필수적이 된다고 대



[사진=김승규기자] 경전철

변인 헨리 벤슨이 설명했다. ◆ 2026년 5월 레이크 워싱턴 횡단 개통 목표 사운드 트랜짓은 2026년 5월까지 레이크 워싱턴 횡단 승객을 수송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2008년 지역 유권자들에

게 약속한 것보다 약 6년 늦은 것이다. 이 새로운 일정은 6월 여기서 열리는 FIFA 월드컵 축구 토너먼트 경기 직전에 경전철 수송 능력을 추가하게 된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1 JEIL TV 제일티비 KOREA TV 한국 티브 방송 실시간 시청

58개 채널 실시간 생방송 제공
모든 채널의 재방송 시청 가능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생방송: 드라마, 오락, 영화, 뉴스, 스포츠, 어린이, 해외드라마, 종영드라마까지 풍부한 콘텐츠

SBS	KBS	KBS2	MBC	EBS
연하뉴스	YTN	JTBC	MBN	CHA
TV조선	TVN	OCN	OCN Movies	OCN Thrills
SCREEN	EBS2	EBS English	TOONIVERS	KBS Kids
재능 TV	SBS GOLF	JTBC GOLD	SBS스포츠	KBS스포츠
MBC 스포츠	MBC 스포츠	JBC GOLF&스포츠	SPOTV2	SPOTV
SPOTV ON	CH NOW	TVN Show	TVN Story	INET
MNET	NATIONAL	JTBC2	FTV	바둑TV
BILLARDS TV	KBS joy	CHING	SBS PLUS	KBS DRAMA
MBC DRAMA	CNTV	PBC	BBC	CTS
BTN	MBC	SBS	KBS1	KBS2
매일경제TV				

가격할인 이벤트

3개월 \$ 90

6개월 \$ 180

1년 \$ 330

Set top Box \$70 → \$50

Free Shipping(미국 내 only)

Free Activation

Cell: 702-937-4616 Email: koreatvjeiltv@gmail.com 카카오톡: Koreatvjeiltv (문자 & 보이스톡 가능)

벼룩시장

J&J CLAIMS
지원자 모집

현재 J&J CLAIMS (www.carcrashwa.com) 팀에 합류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직무:
개인 상해 (자동차 사고 등) - 2명
일반 소송 (법률 보조) - 1명
▶근무지: 다운타운 타코마 (IRS 빌딩 6층)
▶자격 요건: 영어/한국어 가능
기본 컴퓨터 활용 능력 (MS Word, Excel 등)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00 - 오후 5:00
▶근무 환경: 실내주차장 제공, 깨끗한 주변, 안전한 근무 환경
▶페이조건: \$22~\$52.08 +
▶업무 내용: 고객 (병원 등)과의 소통/병원 및 고객 관련 문서 관리 및 정리

지원 방법: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를 sung@carcrashwa.com으로 제출해 주세요.

북경가든 주방장 구함

주방장 구함

타코마 팔도월드(Food Court)

253.588.2399

벨뷰 뮤직 아카데미

▶노래교실&동호회 - 음식도 박치도 괜찮다!함께 즐겨요!
▶통기타 강의 - 초보: 실력에 맞춘 강좌.
- 중급:악보없이 기타칠 수 있습니다.
▶드럼 - 스트레스 날릴 파워풀한 리듬!
▶K-POP - 프로 아티스트 트레이너
-YG,PSY,김범수,성시경 등 대형 프로젝트 참여

206-306-6108

최첨단 페이스/바디케어 미용장비 판매

1. SMART Line Skin Care. 7-in-1
Skin scrubber, Lonto Phoresis, Y Lifting, Ultral Sound, Cryo
2. E-Trans system/Magic pot. 최첨단 리프팅기기
트리폴라 열에너지, 초강력 엔돌로마자 시스템,
부이 빔 블루 레드 칼라 테라피

503-957-3821

Shin's Wellbeing Food

shinwellbeingfoods.carrd.co
김치 Specialist
무설탕,NO MSG,한국 고추가루사용
천연재료만으로 맛을 낸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김치 배달합니다.

206-887-3088(카톡주문 가능)

차량 판매

2020년 형 렉서스 RX450h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합니다. 원래 오너가 꼼꼼히 타던 무사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타이어 새것으로 교체한지 1주일밖에 안 됐음. 색깔은 흰색

206.670.8654

차량 판매

2014년 형 렉서스 CT 200h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합니다. 원래 오너가 꼼꼼히 타던 무사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색깔은 빨간색

206.670.8654

구인

H-mart Tacoma 구인
지원자격:미국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지원부서:Cachier,Grocery, Deli

근무조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점심 제공

(425) 312.4588

공항 Pick Up

공항 Pick Up 또는
라이더 필요하신분
어디든지 갑니다

253-337-7209

구인

한국어/영어 구사 가능한
리걸 어시스턴트 구함
401k 및 건강보험, PTO 제공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이력서 보낼곳:
Justin@parkchenaur.com
(박쉬나 법률)

253-839-9440

무료상담

편안한 집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민생활과
가정, 자녀, 신앙 등에
관한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253-503-9984

박스광고

\$80 / 4회

206-779-5382

한국식당 장비판매

바베큐 테이블 set 신제품 20개
(마블10개/ 체리10개),
냉면 육수 냉장고, 스시 케이스 5ft,
파저리 기계, 등..
한국바베큐식당에 필요한것
모두 있습니다.

253-754-5243

벨뷰 방 렌트합니다.

팩토리아와 다운타운벨뷰를
I-90와 I-405를 5분안에 갈수
있는 조용하고 안전한 위치의
집에 함께 지내실분 여자분
환영합니다. 연락주시면 주소와
사진 보내드립니다. 문자나 전화주세요.

(425) 442-2534

룸렌트

타코마 신신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실 캐쉬어/세일즈/창고
직원 원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이메일 : twin0418@aol.com

(253) 582.2975

렌트

벨링햄
방 한개만
사용할 학생
\$800/월

(253) 334.6078

안쓰는 물건 치워드립니다

운반, 창고 정리, 유품정리,
폐기물처리(수거비) / (대형트럭)
금, 은, 보석 무료감정, 시세매수

253-222-9822

스페이스 리스

스노퀄미 마켓 Empty Space 렌트
스노퀄미역 바로 앞/스노퀄미
폭포 관광지에서 1마일 / 커피, 빵
스무디 등의 비즈니스에 적합
Set - Up 공사기간 3개월
FREE Rent, 1,895 Sqft
렌트비 : \$3,947+ NNN

(206)496.7060

하우스방 렌트

켄트 골프코스 뒷문에
위치한 조용한 주택가
하우스방 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253-374-0458

방 렌트

씨택 공항 근처
렌트비: 750불(유틸리티 포함)
남학생, 직장 다니시는 분 환영.
금주, 금연 하시는 분 환영

206-679-9208

간병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청소/요리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라이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항시 남/여
일할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53) 571.8080

**로맨틱 소개팅
(결혼정보)**

당신에게 맞는 짝이 있습니다
커플메니저가 좋은 만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253) 571.8080

병원 스페이스 렌트

L.Ac, DPT, LMT
Office space for Rent
815 sqft
(Including rooms, recreation
rooms, and bathrooms)

253-941-6779
Email:chachiropractic@gmail.com

린우드 3중 마스타 베드룸 렌트

방2개, 화장실2개 중
마스타 베드룸 렌트
렌트비: \$1,000 (HOB포함)
파킹당 따로 있음
b GYM사용 가능, 한아름,
얼더우드, COSTCO 가까움

206-931-2676

박스광고 \$80/4회 206-779-5382

브라운대 총기 난사범-MIT 교수 피해자, 대학 동기였다

- ▶ 용의자-피해자 모두 포르투갈 명문 공대 물리학과 동기...5년간 같은 반
- ▶ 한 명은 MIT 교수 · 정부 수상자, 한 명은 대학원 자퇴 후 방황
- ▶ 브라운대에서 학생 2명 살해 후 MIT 교수 총격...용의자는 자살

최근 발생한 미국 동부 명문 브라운대 총기 난사 사건과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 교수가 대학 시절 함께 전공 수업을 들은 물리학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용의자 클라우디오 마누엘 네베스 발렌테(48)는 포르투갈 출신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포르투갈 최고 공과대학인 인스티투투 수페리오르 테크니쿠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 대학 동기였던 가해자와 피해자
부유한 가정의 외아들이었던 발렌테는 대학생 시절 포르투갈 대표로 호주에서 열린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 참

가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15일 발렌테가 총으로 쏜 숨지게 한 MIT 플라즈마과학 · 핵융합연구소 소장 누누 루레이루(47) 교수도 같은 학교 친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NYT에 "두 사람은 5년 동안 같은 반에서 공부했다"고 밝혔다. 졸업 때만 해도 발렌테가 수석을 차지하며 루레이루 교수를 앞섰다.

◆ 졸업 후 엇갈린 운명 이들의 운명은 대학원 때부터 갈렸다. 루레이루 교수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2016년 MIT 교수가 됐다. 올해 초에는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대통령 초기 경력 과학자 · 공학자상'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반면 발

렌테는 2000년 브라운대 대학원에 입학했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친구들과 다투거나 주변에 "대학 식당 음식이 형편없다"고 하는 등 불만으로 가득 찬 생활을 했다. 이 시기 부모와도 연락을 끊었다. NYT는 "포르투갈에서 온 전도유망한 물리학도가 브라운대에 진학한 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결국 석사 과정을 마치지 못한 채 자퇴한 그는 포르투갈에서 IT 회사를 다니다 2017년 미국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이 그동안 연락을 하고 지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 브라운대 총기 난사 후 MIT 교수 살해 대학 졸업 후 25년이 흐른 지난 13일, '천재'로 불렸던 발렌테는 자신이 대학



원생 시절 주로 공부했던 브라운대 배러스 앤드 홀리 빌딩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 두 명을 죽였다. 이후 렌터카를 몰고 매사추세츠 고급 주택 단지에 살고 있던 루레이루를 총으로 쏘다. 발렌테는 루레이루가 사망한 16일 뉴햄프셔주의 한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벨뷰 부동산 중개인, 240만 달러 투자사기

워싱턴주 이스트사이드 지역에서 활동해온 부동산 중개인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시애틀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타마라 킹(56)은 지난 19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신사기 공모를 비롯해 다수의 전신사기, 자금세탁, 탈세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킹은 과거 '타마라 월튼'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킹과 전 남편 폴 월튼이 투자자 자금을 빼돌려 벨뷰의 고급 펜트하우스와 클라이드 힐의 5베드룸 주택, 개인 비서 고용, 고급 차량, 다이아몬드 보석, 성형수술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밝혔다. 월튼은 이미 지난 6월 전신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 보도

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벨뷰와 커클랜드에 거주하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월튼은 투자자들에게 시애틀 웨스트 시애틀의 한 아파트 건물을 매입 · 리모델링하기 위해 자금을 공동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할시온(Halcyon)'이라는 투자 펀드에는 총 22명의 투자자가 225만 달러를 출자했다. 투자금은 10년간 묶어두는 조건이었고, 월튼은 연간 1%의 관리 수수료를 받는 대신 10년 후 연 20%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결혼한 킹과 월튼은 이후 펀드를 공동 관리하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십만 달러씩 펀드 자금을 자신들의 관리 회사로 이체했고, 다시 킹의 개인 계좌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금은 '대출'로 위장됐으나 실제 상황은 없었고, 투자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킹은 8.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구입에 5만 달러, 테슬라 차량 구입에 12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

또한 3개 과세연도 동안 실제로는 185만 달러를 수령했음에도 신고 소득은 18만8,116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2019년 자금 분배를 기대했으나, 2018년 말까지 두 사람은 모든 투자금을 유용한 상태였다. 월튼은 투자자들에게 "시공업자가 암 진단을 받아 공사가 수년간 지연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지만, 해당 시공업자는 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019년 가을, 킹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모두 사라졌고 사업이 실패했다고 알렸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총 피해액은 240만 달러에



이스트사이드 지역 부동산 브로커로 활동했던 타마라 킹 (US Attorney's Office)

달했다. 재판에서 킹은 전 남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월튼이 앞으로 돈을 들여왔고, 킹이 뒷문으로 빼돌렸다"며 두 사람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킹의 선고 공판은 내년 3월 20일로 예

정돼 있다. 킹은 전신사기 공모 및 전신사기 혐의로 최대 20년, 자금세탁 혐의로 최대 10년, 허위 세금 신고 혐의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킹 측 변호인은 항소를 예고했다. <조이스애틀뉴스>

몽골 직수입 최고급 순모
특상급 명품 쌍봉낙타 순모

Premier Wool

VVIP 고객들의 재구매율 1위제품

SLEEPING CAMEL

최고의 보온성, 쾌적성과
편안함, 사계절 사용

뛰어난 복원력
숨이 멎지 않음

100% 항균성
알러지 민감한 피부에
안전 친환경 제품

탁월한 흡수성과
발습성

불연소재
정전기 제거

속면을 돕는 가장
가벼운 무게감

워싱턴주 판매처

타코마: 253.227.8586
페더럴웨이: 253.232.9277
린우드: 206.670.8654

엠마부동산



고객님에게 맞춤으로 비즈니스를 매칭시켜 드립니다.

NEW

South Cafe 자리 8만불

- ▶ 카페 여실 수 있는 자리
- ▶ 후드는 없습니다.
- ▶ 렌트비 한달 1000불 +NNN

NEW

식당 자리

- ▶ 10,000불
- ▶ 후드 및 그릴 등 식당장비 있음
- ▶ 식당경험 있으신분만 가능

South 햄버거 15만불

- ▶ 메뉴 추가하면 매출 증가할 포텐셜있음
- ▶ 현재 주인이 일하고 있지않음

한식 요리 가능하신 분!

- ▶ 한식요리에 자신있으신 분에게 좋은 기회 매물 있습니다
- ▶ 남의 밑에서 일하지마시고 소자본으로 한식당 사장님이 되실 수 있는 절호찬스

엠마 부동산

좋은 매물이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고객님께 맞춤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mma Park 206-688-0780 | Emmapark0780@gmail.com

H MART

7 DAYS SALE

DEC 26TH - JAN 1ST, 2026

일주일 내내 매일할인 (야채부/정육부는 4일간 진행)

WWW.HMARTUS.COM

새해 시작과 함께 실맛이 세일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4oz 32oz 비비고
4종 왕교자 **7⁹⁸ EA**



300g 한상
4종 전 **3⁴⁸ EA**



H MART 40주년
리미티드 세일



1kg 한상
2종 떡 **2 FOR 5**



ONLY 4 DAYS 금토일월
SCT 한국산
신고배 **17⁹⁸ BOX**



ONLY 4 DAYS 금토일월
REGULAR FAMILY PACK
냉동 LA갈비 **9⁹⁸ LB**



64oz 레몬랜드
맛김치 **9⁹⁸ PK**



4LB FREEBAY
머리새우 40/50 **12⁹⁸ PK**

PRODUCE SALE 야채

ONLY 4 DAYS 금토일월



MEAT DEALS 정육

ONLY 4 DAYS 금토일월



Available at HMART and GMART except the 2nd & Pine and UW Seattle store, Valid while supplies last, Quantities limited to stock on hand, Images may not be the same as shown, Copyright©H-MART corp. All Rights Reserved, 본 프로모션은 HMART와 GMART에서 적용되며, 2nd&Pine

GROCERY DEALS 식료품



6pk/500g (비비고) 사골곰탕 **10⁹⁸** BOX



270g (분죽) 8종 죽 **3⁹⁸** EA



2.2LB (디와이프) 오새송편 **6⁹⁸** EA



480g (한상) 해물완자 2종 **4⁹⁸** EA



590g (비비고) 버섯잡채 **6⁹⁸** EA



310g (최간) 왕만두피 **1²⁸** EA



2.2LB (청정원) 튀김가루 **2⁷⁸** EA



1.7L (샘표) 진간장 **5⁹⁸** EA



1.8L (롯데) 미림 **5⁹⁸** EA



2pk/14.1oz (한상) 찰깃하물 부산어묵 기획상품 **3⁴⁸** EA



2.2LB (대림선) 게맛살 큰잔치 **4⁴⁸** EA



3미/165g (수협) 동해안 건오징어 **17⁹⁸** EA



15LB (초립동이) 경기미 **9⁹⁸** BAG



15LB (삼수갑산) 찹쌀 **11⁹⁸** BAG



4pk/120g (농심) 너구리 매운맛 **4⁹⁸** EA



9.8oz (농심) 생생우동 큰컵 덴뿌라 **2⁷⁸** EA



20pk/4g (광천) 2종 도시락김 **6⁹⁸** EA



150g (초립동이) 순미역 **4⁹⁸** EA



650g (한상) 동원얼짬 짜꾸미 매운맛 **14⁹⁸** EA



1.5LB (서울순대) 순대 **9⁹⁸** EA



198g (단야) 명란전 **6⁹⁸** EA



2인분 466g, 490g (CJ) 우동 2종 **4⁴⁸** EA



5.5LB (곰표) 밀가루 중력분 **3⁹⁸** EA



10btl/120ml (동화) 3종 건강음료 **5⁹⁸** BOX



1.76LB (초립동이) 쌀과자 맘모스 **6⁹⁸** EA



170g (초립동이) 삼색연유과 **3⁹⁸** EA



12pk/28g (오리온) 2종 후레쉬베리 **4⁴⁸** EA



135g (오리온) 썬칩 2종 **2 FOR 5**



6btl/238ml (팔도) 비락식혜 **5⁴⁸** PK



3pk/75g (HQ) 3종 아이스크림 **6⁹⁸** BOX

SEAFOOD SALE 수산



3.3LB (초립동이) 특대굴비 **37⁹⁸** PK



400g (자갈치로맨) 동태전갈 **7⁹⁸** PK



한국산 백조기(250g) **2⁹⁸** LB



2.2LB (DAIFUKU) 종합어묵 **6⁹⁸** PK

DELI SPECIALS 반찬



250g (레몬랜드) 매운어묵볶음 **3⁹⁸** PK



150g (레몬랜드) 무말랭이 **2⁷⁸** PK



70g (레몬랜드) 건새우간장볶음 **3⁹⁸** PK



220g (레몬랜드) 콩고물 앙금인절미 **3⁹⁸** PK

KITCHEN & HOME DEALS 생필품



24cm 알루미늄 냄비 **29⁹⁸** EA



800ml (워너비라팔) 보온보냉병 골드 메탈 **11⁹⁸** EA



뒤집개/스패츨러 **8²⁸** EA
뒤집개 (릴팡) **8⁷⁸** EA
실리콘 피규어 조리도구



서빙스푼 **7⁷⁸** EA
국자 (릴팡) **8²⁸** EA
실리콘 피규어 조리도구

NEW ARRIVAL SUPER SALE

폴무원 가락유부우동

폴무원 통모짜감자 핫도그

폴무원 직화 짜장+짬뽕

OPEN 365 DAYS 8AM - 9:30PM

MORE DEALS IN-STORE! VISIT YOUR NEAREST LOCATION

THIS SALE ALSO APPLIES AT LYNNWOOD GMART.

Federal Way Redmond Lynnwood Ballard Tacoma Smart (8am - 9pm) Bellevue

UW and Seattle (2nd & Pine) stores are excluded from the sale.

과 UW Seattle 매장은 제외됩니다. 프로모션 제품은 조기 품절되거나,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물의 사용에 대한 법적 권한은 H MART에 있습니다.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시애틀 No.1 한인 여행사
드림투어
206.200.3113

주소: 31434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정확한 진단, 빠른처리, 안전한 시공
OK Handyman
페인트 · 보일러 · 펜스
데크 · 각종 집수리 등

Cell 206.306.6700 / 206.779.5382
Email skgid7700@gmail.com

연금저축보험 / 대학자금 / 일반연금 / 양보험
조요셉 종합보험
자동차 · 사업체
주택 · 생명보험
문의 **253.459.9800**
개인별 맞춤설계 / 회사별 비교견적 / 신속상담

최고 실력, 최고 부품사용 개런티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비 서비스!
One Stop 그린우드 종합정비
Tony's 그린우드 오토바디
Tel. 206-706-2778
8208 Greenwood Ave N, Seattle, WA 98103

20년의 경력과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일하는
김연정 부동산
YON KIM, Managing Broker
Best Choice REALTY
253.227.6673
yon@bestchoicerealtywa.com



“한국 브랜드 35곳, 벨뷰 연말을 밝히다”

시애틀바자르, 'Merry K-risntas Market' 성황리 개최
12월 18일~21일 총 35개의 한국 및 아시아 브랜드 참여

4일간 벨뷰 팩토리아를 가득 채운 한국형 크리스마스 마켓이 올해도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시애틀바자르(Seattle Bazar)가 주최한 'Merry K-risntas Market 2025'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총 35개의 한국 및 아시아 브랜드가 참여해 패션 · 뷰티 · 홈리빙 · 푸드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약 1만 명 이상이 행사장을 찾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참가자들이 부스에서 진열품을 구경하고 있다. 박재영 기자

“친절하고 성실한 메디케어 전문”
메디케어 상담전문 **이영이 보험**
206.407.8478
youngyi712@gmail.com

광고 문의 **206.779.5382**

패티임 보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준비, 노후계획 무료상담
253-632-8904
생명보험/은퇴플랜/401K 롤오버/메디케어
E-mail: girlpatti1@gmail.com

가정의학 / 소아과 / 부인과 / 노인과 / 내과 / 정신건강 / 응급치료 / 각종예방접종
채정희 클리닉
ADVANCED FAMILYCARE MEDICINE
모든보험 | 스킨케어
원격진료(Virtual Care) 가능
“10여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친절하게 진료해드립니다.”
☎ 253-314-5742 레이크우드 부한플라자 내에 위치

ANIMAL CLINIC OF BENSON
종합 동물병원
253.852.6330
10700 SE 208th St #204 Kent, WA 98031

K-beauty
FIND YOUR BEAUTY
화이트 태닝 Red Light Therapy
피부에 조명을 쬔다!!
페더럴웨이점 206-670-8654
린우드점 425-561-7866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친절한
김양미 보험
메디케어전문
매년감 의료
통역경력
☎ **206-679-8301**
✉ getcare8282@gmail.com

**주방장
구함**

Peking Garden Chinese Restaurant

북경가든

여기!

맞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짬뽕과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집

예약/주문

253.588.2399

타코마 팔도월드(Food Court) 9701 So. Tacoma Way #115 Lakewood, WA 98499



J&J

세무회계법인 로펌

" 커피 한 잔 값까지도 절세 "

작은 비용까지 챙기는 꼼꼼한 절세

" 회계사·변호사 동시 무료 상담 "

각종 서류·계약·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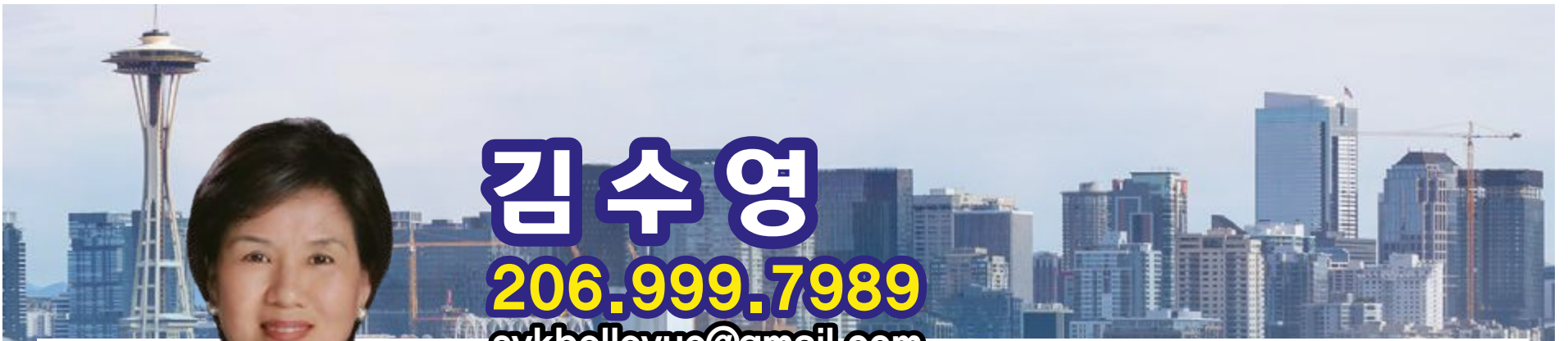
"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파트너 "

비즈니스 셋업·서류 업무, 추가 비용 \$0

비즈니스 전문

절세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들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201 PACIFIC AVE 600, TACOMA, WA 98402
OFFICE: 253 400 7586 / 253 203 3137(8)



김수영
206.999.7989
 sykbellevue@gmail.com

“이사철의 계절, 집 장만의 계절”

Designate Broker

주택 ◆ 커머셜 (호텔, 모텔, 주유소, 투자성건물) ◆ 사업체 EB-5 (투자이민) ◆ E2 (소액투자) ◆ 부동산관리 ◆ 워싱턴주내 별장

Bainbridge Island 상가건물 & 61,855 sf. 상가건물건축 가능한(NSC)대지

\$1,960,000



- ▲ 건물 6,000sf · 대지 61,855sf(1,738평) ▲ Fully occupied, gross \$20 매우 낮은 월세 ▲ 동네 유일 성업중 그로서리 ▲ 주차 43대 가능 ▲ 20년 영업 유명 이태리언 식당 ▲ Upholstery 및 주차장 수입 포함 ▲ 현재 월 렌트 \$9,200 (곧 대폭 상승 예상) ▲ 요지 사거리 중심 Mixed Use Zone ▲ 상가·사무실·콘도·Storage 개발 가능 ▲ 유입인구 증가, 미래 투자성 높은 부동산 ▲ 우체국·법원·교회 인접 중심지

에버렛 다운타운 노른자위 장소에 자리잡은 커머셜 건물

\$1,190,000 2,850 스퀘어피트

- ▲ 에버렛 시청·법원 앞, I-5 인접 ▲ 월매상 \$4 만~4.2만 퓨전 한식당(건물 포함) ▲ 세련된 인테리어·최신 장비 ▲ 100만불 이상 리모델링·후드 2개·신식 주방 ▲ 한식·일식·카페 등 다목적 활용 ▲ UW 카페 10곳 납품 ▲ 2인 가족·파트너 운영 최적 ▲ SBA 융자(20% 다운)·E-2 비자 가능 ▲ 광고·배달·온라인 주문 확장 ▲ 소비자 평점 4.8

방2, 화장실 2, 차고 1

Dupont 타운 홈

\$359,000 매매

- ▲ Fort Lewis 정문 5분 거리 ▲ 방 2, 화장실 2, 차고 1, 데크 포함 (1,020sf) ▲ 밝고 깨끗한 구조 ▲ 공원과 트레일 인접, 탁 트인 전망 ▲ 양옆에 다른 유닛 없는 독립형 구조 ▲ 월 임대수입 약 \$2,300 예상 ▲ I-5, 아마존, Dupont 시내 접근 편리 ▲ 세련되고 효율적인 콘도 구조



김수영 부동산 전속 협력회사 임원들과 함께

강력한 협력팀

- 융자팀: 주택융자 비영주권자 융자 상업 융자 ● 스테이징 서비스
- 전문 사진사 ● Property management 자매회사 ● 핸디맨/건축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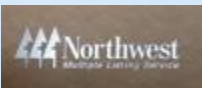
김기호

253.651.3778
 khkhelix@gmail.com

김수영
 부동산
 주택 | 커머셜 | 사업체

206.999.7989

Designated Broker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인 협회 2018 회장
 sykbellevue@gmail.com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인 협회
 WA Korean Designated Brokers Association

1085 103rd Ave NE Bellevue, WA 98004
 최신 리스팅과 정보는 sueyoungkim.com 에서 확인하세요

E2 비즈니스를 찾고 계신가요?

아직도 힘들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신분유지로 억지로 하시지마시고 **E2 비즈니스**에
최적 매물을 만나보세요.
학생비자에서 E2 비자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엠 마 부동산

좋은 매물이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고객님께 맞춤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mma Park 206-688-0780 | Emmapark0780@gmail.com

시애틀 인근 ICE 단속 급증...한인 이민자 사회 '각별한 주의' 당부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 절차 미준수 의심 사례 보고...커뮤니티 경각심 높아져

시애틀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이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한인 사회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Korean American Immigrant Task Force)는 연말 들어 시애틀 인근 여러 지역에서 ICE 단속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체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충격을 준 사례는 시애틀 근교 홈디포(Home Depot) 매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한인 이민자가 ICE 요원에게 갑작스럽게 연행된 사건이다. 해

당 이민자는 범죄 연루나 영장 제시 없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역 구금 시설(detention center)에 수감된 채 이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체포 방식은 지역 한인사회 뿐 아니라 이민자 전체 커뮤니티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우연의 단속이 아니라 무작위적 선별 단속(racial profiling 또는 at-will enforcement)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보에 따르면 ICE가 단속 실적(quota)을 채우기 위해 공공장

소나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도 불시 체포를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이민자의 적법 절차(due process)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 해소와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대형 마트, 주차장, 일터 주변 등 공공장소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ICE 요원이 접근할 경우 영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서명이나 진술을

강요받더라도 즉시 응할 의무는 없다. 셋째, 체포 또는 구금 상황이 발생하면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지인 또는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넷째, 단속 상황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커뮤니티 단체 또는 이민자 권익 단체에 제보해 기록을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이민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지 않도록 돕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권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서류 신분자나 신분 문제로 취약한 이민자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숙지해 둘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인생활상담소 관계자는 "우리의 안전은 정보와 연대에서 시작된다"며 주변 가족, 친구, 이웃들과 이번 경고 내용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단속 활동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사회는 이번 경고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어 보험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가입

플랜에 따라 혜택도 다릅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좋은
플랜으로 선택하세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플랜변경 기간입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에이전트들에게서
무료로 자세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단계. 1

일반 메디케어에
가입하십시오.

일반 메디케어 (연방 정부에서 제공)



병원 입원 및 입원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의사 방문 및 외래 진료 비용
지불에 도움

선택사항 1

또는

선택사항 2

일반 메디케어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추가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십시오.

메디케어 보조 보험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일반 메디케어에 수반되는
회원 지출액 일부에 대한
비용 지불에 도움을 줍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민간 회사에서 제공)



파트 A (병원보험) 및
파트 B (의료보험)를
하나의 플랜에서 통합합니다.



보통 처방약 혜택이 포함됩니다.

일반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계. 3

저희에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단계. 2

귀하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한지 결정하십시오.
추가 혜택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무엇이든 대답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연 종합보험
Federal Way
253-228-5295
Tacoma
253-335-3895
jpinsurance.us@gmail.com
JP INSURANCE

온정숙 종합보험
Cell
253-353-9730
Office
253-503-6441
jungvaughn62@comcast.net
VAUGHN Insurance Services, LLC

패티임 보험
Cell
253-632-8904
Office
253-335-3895
girlpatti1@gmail.net

**이백희
메디케어 전문보험**
Cell
253-228-7006
bkns.medicare@gmail.com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힘내세요! 함께 이겨내요! 😊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봉식 전 회장이 감사장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어제보다 빛나는 오늘”

워싱턴주 전 · 현직 회장단 · 전 이사장단 한상회 송년모임 '성료'
지난 19일 벨뷰서 김승애 한상회장, 만장일치로 제4대 회장 연임

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 전 · 현직 회장단과 전 이사장단이 함께하는 한상회가 지난 12월 19일 오후 5시, 벨뷰 와일드 와사비 시그니처 레스토랑에서 2025년도 송년모임을 열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조직의 기틀을 다져 온 역대 회장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행사는 ‘어제보다 빛나는 오늘’이라는 주제로 제4대 회장 김승애, 만장일치로 제4대 회장 연임

년간 헌신한 김승애 회장이 전 · 현직 회장단의 만장일치 추천으로 제4대 회장으로 연임하게 됐다. 추천에 앞장선 강석동 전 회장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상회를 묵묵히 지켜온 김승애 회장의 리더십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라며 찬사를 보냈다. 이어 열린 상공회의소 시상식에서 제35대 은지연 회장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한상회 김승애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년간 회장직을 맡아

상공회의소를 이끌어 온 은지연 전 회장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됐다. 아울러 고봉식 전 회장 등 역대 회장들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하며, 상공회의소의 역사를 만들어온 리더들의 헌신을 기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오명규 제36대 차기회장은 “우리는 한 우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식구와 같다”며 “뜻이 다를 때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며 더 따뜻하고 화목한 단체로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역대 회장들의 모임인 한상회는 앞으로 상공회의소의 발전과 위상 강화, 내부 화목을 위해 지속적인 자문과 격려,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모았다. 강석동 회장의 힘찬 건배사로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 없는 열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특별한 밤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새해에도 상공회의소가 더욱 단단한 조직력과 세대 간 조화 속에서 발전해 나가길 소망하며 아쉬움 속에 송년회를 마무리했다.



오명규 차기회장(왼쪽)이 2년간 헌신한 은지연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신문

MS MEDIA GROUP CORP.

미디어한국 스포츠서울USA Q우먼즈

미디어한국 MEDIA HANKOOK
발행인 박재영
편집인 박재영
전화 206.779.5382
ads@mhankook.com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스포츠서울USA
오리건 타임스
The Oregon Times

Media Hankook is published by MS Media Group, Corp. 33110 Pacific Hwy S. #8 Federal Way, WA 98003, on every Friday. Subscription rate and the monthly delivery rate in most areas are \$15/month for minimum 4-day services per on month.

미디어한국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 구독료 150달러를 체크나 머니오더, 또는 크레딧카드로 신청하시면 매주 정기적으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Media Hankook is published weekly for \$150 per year by MS Media Group Corp.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Periodical Postage Paid at Federal Way and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MS Media Group Corp.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광역시애틀한인회
GREATER SEATTLE KOREAN ASSOCIATION

신뢰받는 메신저,
소상공인을 위한 알림이 시애틀한인회



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
Supported by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erce

워싱턴주 상무부 소상공업반등네트워크
(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의 파트너

“코비드로 인해 타격받은 **워싱턴주 소상공업**의 회복과 번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공정하게 지원합니다. 특별히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듯한 사각지대에 계신 동포 소상공업체에게 현사업 운영에 관련된 간단한 번역, 조언과 기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연계 기관과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206-669-2578



오스카양 변호사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첫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민사소송 및 계약
- 비즈니스 법 (고용이슈 포함)
- 부동산 법
- 상속/자산 관련 법

SPECIAL
OFFER

광고 보신분에 한하여
오피스 상담시 첫 상담은 특별가로 해드립니다
전화 상담시 선불 30% Discount해드립니다

Q. 부동산 또는 사업 거래, 협상, 및 계약서 형성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A. 저희는 고객들의 이런 갈등 등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이 누구의 잘못이고 소송 여부에 더 쉽게 결정 하 실 수 있도록
첫 상담을 잡으세요.

Q. 직원으로써,아님 고용주로서 고용 분쟁 이 있으신 가요?

A. 저희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토록 진심으로 노력하고,
이미 커졌으면 당신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Q. 채무자에게서 돈을 못 받거나 채권자가 제대로 채무자의 권한을 존중 안해주나요?

A.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 채무자들이나 채권자들을 대변해오고 있습니다. 첫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 전에 몰랐던 점들과 잘 못 아시고 계신 점들을 알게 되고, 그 잘못 아시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십만불까지도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방문해주세요.

가정법

-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무분쟁 이혼
- 이의 제기된 이혼 분쟁/소송
- 가족 비즈니스 및 다른 자산 분할
- 양육권 및 양육비/배우자 생활 보조비



변호사 사무실

206) 979-7081 (한글 사무직원)

360) 218-7273 (오피스)

team3@esberrylaw.com

Factoria 13555 SE 36th St STE 100 Bellevue, WA 98006

Downtown 1400 112th Ave SE STE 100 Bellevue, WA 98004

다트머스 BA

프랑스 소재 인시아드 경영대 MBA

하버드 정치 행정대 MPP

코넬 법대 JD



Oscar Y. Yang
Attorney at Law

새로운 당신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선택,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시애틀한국문화센터

노래교실
동호회

월요일
11시~2시



K-POP
댄스

토2:30~3:30
토4시~5시



대화로하는
생활영어

토·일
시간미정



생활영어

일요일
4:30~6시



스페니시
클래스

시간미정



냉동,냉장
기술

시간미정



라쥬바
댄스

화·토
10시~11시



라인댄스

목요일
10시/11시



요 가

화·금
10:30~12시



건강
유연운동

목요일



이달의 추천 강좌 <스페니시 클래스>

"두뇌 건강 + 언어 실력, 동시에 잡자!"

1. 스페인어, 생각보다 쉽고 재밌다!
2. 여행, 비즈니스, 건강까지! 스페인어로 더 넓게!

"전 세계 5억 명과 소통할 기회!"

뇌를 젊게, 인생을 넓게!

가장 실용적인 언어, 스페인어!

무료로 배우고 평생 활용하세요.



시애틀한국문화센터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문의 및 등록: 206-759-0125

[강사 초빙]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 ▶ 전문 기술직: 현장 실무 관련 강의 가능하신 분(예:냉동, 전기,컴퓨터)
- ▶ 음악/예술: 악기를 다루시는 전공자 (예:피아노,바이올린,첼로,드럼, 미술)
- ▶ 그 외: 어떤 분야든 교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가진 분

JUNG KWAN JANG



정관장이 준비한

연말 선물보따리

행사 기간: 12월 5일 ~ 12월 31일

SALE
UP TO **20%**

\$200 이상 구매시 **10% 할인**
\$300 이상 구매시 **15% 할인**
\$500 이상 구매시 **20% 할인**

행사1



보자기 포장 제공

홍삼정 240g
홍삼정 리미티드 (3개입)
천녹, 달임액 구매시

행사2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균형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음용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NO.1

WORLD'S NO.1
GINSENG BRAND

125

125 YEARS OF
QUALITY & PURITY

420

420 QUALITY
& SAFETY TESTS

FIND OUT MORE



JUNGKWANJANG.US/
f / KGCUS

린우드점 Lynnwood

425.412.3453
3411 184th St. SW. #150
Lynnwood, WA 98037

타코마점 Lakewood

253.589.1800
3520 96th St. S. #117.
Lakewood, WA 98499

함께라서 따뜻했고, 함께라서 더 희망이 된다

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 열린 공간과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다



새로운 교회 간판.



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 외부 전경.



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 내부 모습.

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New Hope Church)가 지역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운영자는 교회를 단순한 예배당이 아닌, 누구나 편안히 머물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격려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중장년층을 위한 "싱글모임 신설",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활동,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교회"라는 새 방향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어 간다.

▲작은 공간이 주는 큰 따뜻함

페더럴웨이에서 자리한 새소망교회는 외형적으로 크지 않지만,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부드러운 환대와 마음의 쉼"을 제공해 왔다. 운영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편안함, 따뜻함,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되는 자리"라고 말한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외로움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소망교회는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열린 집'이 되고자 합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신앙 유무와 관계없이 각기 다른 이유로 방문하지만, 공통적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평가가 많다.

▲함께하는 식사가 만든 기적

새소망교회의 가장 오래된 아름다운 전통은 '예배 후 함께 나누는 식사'다.

그저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알아가고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다.

어떤 날은 외로움을 털어놓는 이가 있었고, 어떤 날은 기쁨을 전하며 웃음꽃이 핀 날도 있었다.

한 끼의 식사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된 것이다.

운영자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힘이 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아, 이곳이 존재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새소망교회는 이 식탁 문화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문화가 흐르고, 재능이 살아나는 열린 공간
새소망교회는 예배당을 넘어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소규모 문화센터 역할을 해왔다.

탁구, 운동 모임, 요리 교실, 시니어 활동, 문화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이미 지역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운영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지역 주민들의 재능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더 크게 확장하기를 꿈꾼다.

"요리를 잘하든, 음악을 좋아하든, 미술·건강·기술·생활 경험이든 어떤 재능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재능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나누어 주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의 작은 재능이 모이면,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더 따뜻해진다.

▲새롭게 시작되는 중장년 싱글모임

새소망교회가 새롭게 준비하는 대표적인 변화는 '중장년 싱글모임'이다.

이민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는 중장년층은 말하지 못한 어려움과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기 쉽다.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 * 함께 나누고
- * 함께 걸으며
- * 함께 식사하고
- * 함께 배우고
- * 함께 여행할 수도 있는

진정한 '동행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된다.

"중장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 옆에서 같이 걸어주는 일입니다. 이 모임이 많은 분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즐거는 교회'로

운영자에게 새소망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바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교회'이다.

교회는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어

- * 쉬고 싶을 때
 - * 대화하고 싶을 때
 - * 배움을 얻고 싶을 때
 - *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을 때
-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열린 생활 공간'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는

- * 휴식 공간 정비
- * 다양한 모임과 클래스 신설
- *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누구든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따로 예배하고, 또 함께 모이는 교회"

새소망교회에는 오래된 아름다운 문화가 있다.

바로 '각자 예배 드리고, 다시 함께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전통'이다.

이민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정(情)을 되찾는 시간.

서로의 삶을 이어주는 고리.

어려운 날에도 웃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힘. 운영자는 이 전통을 지켜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희망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란다

새소망교회의 이름처럼, 이 공간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희망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따뜻한 눈빛, 함께하는 식사, 작은 재능의 나눔,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낸다는 용기에서 자란다.

운영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한다.

"우리는 크지 않지만, 마음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소망교회는 오늘도 조용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더 넓은 공동체, 더 따뜻한 공간, 더 희망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주소: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예배시간: 주일 오후 2시

▲문의: 253)508-8902



새롭게 시작되는 중장년 싱글모임 모습



페더럴웨이 펠로우십센터 평생교육원 일식 강좌 모습.



허만 법률 그룹

3대를 이어온 변호사 가문

창립자 Karl Herrmann(1915-1997) : 전 상원의원 및 보험위원



“고객 한분 한분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교통사고 전문 허만 법률 그룹

사고로 다치셨습니까?
저희가 곁에 있습니다

창립70년이 넘게, 저희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뛰어난 실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해 왔습니다.
고객을 위한 것이라면 작은 일도 크게 보는 변호사
오늘도 고객만을 생각하는 변호사 찰스 허만이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시애틀 · 타코마

페이지 리 (Paige K. Lee)

Cell: 206.773.8180
Direct: 206.492.7722
Fax: 206.492.7723
E-mail: paige@hlg.lawyer

교통사고

- 각종 상해사고/ 목허리부상
- 부당한 죽음/ 보행자 사고
- 뇌손상 사고/ 낙상사고
- 오토바이 사고/ 비행기 사고
- 제조물로 인한 상해



시애틀 · 타코마

줄리 황 (Julie Hwang)

Cell: 206.409.4611
Direct: 206.457.4200
Fax: 206.457.4201
E-mail: julie@hlg.lawyer

www.hlg.lawyer

시애틀 사무실

505 5th Ave. S, Suite 330 Seattle, WA 98104
T_206-625-9104
F_206-682-6710

타코마 사무실

1535 Tacoma Ave. S. Tacoma, WA 98402
T_253-627-8142
F_253-627-1835

문턱 높아진 아이비리그, '데이터로 돌파한다'

벨뷰 워싱턴교육원, 오는 12월 27일 오후 1시 30분 대입 전략 세미나 개최
한상범 퀀텀 어드미션즈 대표 초청...2025 입시 변화와 합격 로드맵 심층 분석

미국 명문대들의 합격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입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가운데, 워싱턴주 벨뷰에서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대입 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워싱턴 교육원(WEI)은 오는 12월 27일 오후 1시 30분, 교육원 컨퍼런스 룸에서 '아이비리그 및 영미 명문대 입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에서 "입시 데이터의 대가"로 평가받는 한상범(Sam Han) 퀀텀 어드미션즈 대표를 초청해 진행된다. 현장 참석과 실시간 화상 연결이 결합된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미국·영국 대학 입시 환경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상범 대표는 글로벌 교육 컨설팅 기관 크립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대표, 국내 다수 특목고 칼리지 카운슬러 등을 역임했으며, 미국 입학사정관 협의회(NACAC)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7년간 2,300명 이상의 명문대 합격생을 배출해 온 그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입시 전략 제시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최근 하버드, 예일, 다트머스 등 최상위 대학들이 SAT·ACT 제출을 다시 의무화(Test-Required)하고, 입시 결과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한 대표의 데이터 분석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 "점수·활동·에세이의 조합이 어떻게 선발 라인업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할 예정이다. 강연의 중심에는 방대한 실제 사례 분석이 놓인다. 단순한 입시 설명을 넘어

▲전공별로 차별화된 스페셜 액티비티(EC) 설계법 ▲입학사정관을 설득하는 에세이 구조 ▲아이비리그·옥스퍼드·캠브리지 동시 지원 전략 등, 명문대 합격생과 불합격생의 데이터를 비교한 실전 로드맵이 공개된다. 강연 이후에는 한 대표가 한국에서 실시간 상담에 참여해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목표에 맞

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한다. 워싱턴 교육원은 벨뷰에서 학업 지원, 예체능, 튜터링, 여름 캠프 등 폭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교육원 측은 "한 대표의 정확한 분석과 본원의 체계적인 학생 관리 시스템이 결합해 시너지가 클 것"이라며 "특히 9~11학년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인 진로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세미나는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신청은 워싱턴 교육원(425-520-0221)을 통해 가능하다.

▲행사 안내
-일시: 2025년 12월 27일(토) 오후 1:30~3:30
-장소: 워싱턴 교육원 Conference Room(15405 SE 37th St Bellevue, WA 98006)
-예약 및 문의: 425-520-0221(사전 예약 필수)



Washington Education Institute
JOIN US FOR OUR
OPEN HOUSE!
SATURDAY, DECEMBER 27TH
1:30 PM - 3:30 PM

Campus Tours | Meet Our Teachers | Student Activities

Meet College Admissions Specialist
Han Sang-bum (Sam Han)
CEO, Quantum Admissions
International College Admissions Specialist
Former Korea Representative, Crimson Education
Ivy League Admission Case Studies

◆ RSVP TODAY! ◆
15405 SE 37th St. Bellevue, WA 98006
washingtoneducationinstitute.com
(425)-520-0221
info@washingtoneducationinstitute.com

R&B 건축 자재 : 리모델링, 신축, 소매, 도매, 상업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해결**하세요.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디어와 전문 건축 기술로, 여러분의 비전을 놀라운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프로젝트의 규모와 상관없이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랜드 오픈 할인 행사!

최대 45% 할인

구매금액	사은품
Over \$10,000	최대 \$300 상당의 고급 LED 조명 선택 가능
Over \$25,000	\$800 상당의 고급 후드
Over \$50,000	\$1,000 상당의 소파 + 고급 후드
Over \$100,000	고급 대리석 식탁 세트 + 소파 + 고급 후드 + 고급 LED 조명

그랜드 오픈 축하 행사에 참여하시고, 믿을 수 없는 프로모션 혜택을 누리보세요. 특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고급 선물을 드립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은 매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Building Supply
Construction**



**건축자재
리모델링**



문의 : **(253)277-2740**
(253)277-2790

✉ seattle@rnbbuildingsupply.com 🏠 www.rnbbuildingsupply.com

510 Strander Blvd, Tukwila, WA 98188

★ 50,000 sf 규모의 창고와 소매점 보유: cabinets, countertops, LEG lights, tiles, vinyl plank, engineer wood flooring, sinks, faucets, high-end range hood and more



빅허그 닉 김 대표가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서은지 총영사가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행사 참가자들이 아는 음악이 나오자 무대로 나와 칼군무를 선보이고 있다.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어묵 등 음식 서비스를 도운 자원봉사자들.

"여러분의 열정이 한류를 세계로 이끈 힘입니다"

빅허그, 주시애틀 총영사관 후원으로 K-POP 팬들 위한 특별한 축제 개최
18일 시애틀 총영사관서 음악·댄스 등 어우러진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

위싱턴주 한인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빅허그'가 지난 18일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의 후원을 받아 시애틀 총영사관 1층에서 K-POP 팬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를 열었다. 행사는 음악·댄스 등이 어우러진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한국문화에 대한 지역 팬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빅허그 닉 김 대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활기찬 문화 행사가 진행되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른다"며 참가자들을 반겼다. 이어 "이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팬과 문화가 서로 연결되는 자리"라며 "K-POP을 사

랑하는 여러분의 에너지야말로 이 거대한 글로벌 현상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서은지 총영사는 "예술은 혼자만의 힘으로 세계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사랑, 열정, 그리고 헌신이 K-POP을 오늘의 자리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K-POP이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여러분과의 '소통'과 '공감'에 있다"며 "오늘이 자리가 다시 한번 서로를 연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장은 곳곳에 한류를 세심하게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로 꾸며졌다. 특히 시애틀 총영사관 내부 공간을 서울 지하철

승강장처럼 연출해 참가자들로부터 "정말 한국에 온 것 같다"는 탄성을 자아냈다. 일부 외국인 참석자들은 한복을 입고 행사에 참여하며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 행사에서는 한국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와 어묵이 무료로 제공되어 팬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음식까지 완벽한 K-POP 페스티벌"이라며 즐거움을 표현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댄덤 플레이 댄스'였다. 인기 DJ 무백 팀의 음악이 흐르자 참가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무대 앞으로 뛰어나가 마치 리허설을 한 듯한 칼군무를 선보였다. 사회자가 "어떻게 이렇게 한 팀처럼 딱 맞냐"고 감탄할

정도로 놀라운 호흡을 보여주었고,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춤으로 하나 되어 현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행사 관계자는 "이 공간은 평소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환영은 삼가달라"고 안내하면서도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K-POP을 마음껏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팬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큰 웃음을 나눴다. 행사 후반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 덕분에 오늘이 완성됐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다"라는 감사 인사가 연이어 전해졌고, 팬들은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빅허그 닉 김 대표

는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어 한류를 사랑하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감동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애틀 총영사관 관계자 역시 "총영사관 공간을 K-POP 팬들에게 개방한 것은 한류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화 외교 차원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행사는 끝날 무렵까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참석자들은 "시애틀에서 한국을 체험한 잊지 못할 하루였다"며 아쉬움을 남기고 행사장을 떠났다. 박재영 기자



상업용 부동산은 김원현 부동산



김원현 Won Kim
206.370.2382
wonkim1974@hotmail.com

비즈니스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테리야기 / 음식점

1.테리야끼	\$690,000	일매상: \$4,000
2.테리야끼	\$530,000	일매상: \$3,500
3.테리야끼	\$230,000	일매상: \$1,700
4.테리야끼	\$280,000	일매상: \$2,300
5.테리야끼	\$180,000	일매상: \$2,000
6.테리야끼&Sushi	\$50,000	일매상: \$1,000 (Owner Carry 가능)
7.테리야끼 (부동산포함)	\$830,000	일매상: \$2,200

Grocery

1. \$105,000	월매상: \$55,000
2. \$280,000	월매상: \$65,000
3. \$300,000	월매상: \$80,000
4. \$350,000	월매상: \$90,000
5. \$600,000	월매상: \$95,000
6. \$100,000	월매상: \$45,000 (Owner Carry 가능)

상가건물

\$1,200,000 CAP: 7%

Motel

\$1,750,000 Year Income: \$450,000

올 부동산 (RealtyAll.com)

since 2002 Year

주택/아파트/상가/모텔/호텔/주유소/그로서리/식당/세탁소/각종 사업체/땅/부동산 건물 관리

고객 여러분의 귀중한 자산을 늘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6.228.4989

도병호

대표 Broker
Brian Do

briando@realtyall.com



253-205-5553

도은영 Monica Kim

eunyoung@gmail.com



2025
MERRY CHRISTMAS

2026
HAPPY NEW YEAR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기쁜 성탄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한해 올 부동산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한해도 여러분의 모든 부동산 투자에
모든 에이전트가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올 부동산 드림**

시애틀한국교육원, 개원 26년 만의 성과 공유

지난 12월 18일 벨뷰 우블링에서 언론인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이용욱 원장, "올해 성과는 협력 관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결과"

시애틀한국교육원(원장 이용욱)이 지난 18일 벨뷰 우블링 레스토랑에서 지역 언론인을 초청해 연말 오찬 간담회를 열고, 개원 26년 만에 맞이한 2025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4월 개원 이후 숨 가쁘게 이어진 교육원 활동을 돌아보고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욱 원장은 자리에서 "개원 이후 8개월 동안 교육원이 지역사회 교육행정기관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올해 보여준 성과는 교육부와 한국 각 시·도교육청, 그리고 여러 대학들과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 교육부·한국 교육청과의 협력 확대...서북미 최초 교육행정가 9명 방한 연수

시애틀한국교육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교육기관과의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왔다. 교육부, 경기도교육

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서북미 지역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교류 사업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서북미 지역 최초로 교육행정가 9명이 참여한 대규모 방한 연수를 성사시켰다. 이는 기존의 1~2명 중심 참여에서 획기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교육원 개원 이후 가장 의미 있는 교류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벨뷰 교육감이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MOU 협력기관인 성남시교육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실질적 관계 구축도 이어졌다.

■ 200달러 캠프가 가능했던 이유...“한국 교육기관의 전폭적 지원”

이 원장은 올해 가장 큰 성취로 '2025년 시애틀한국교육원 어린이 여름캠프'를 꼽았다.

5일간 약 200달러라는 낮은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교육기관의 물적·인적 지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의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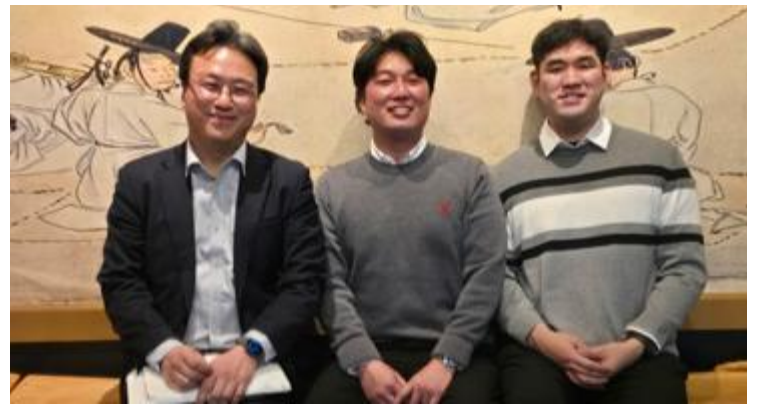
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고, 완성도 면에서도 매우 만족스럽다"며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서 주간 행사에서도 전북·충북교육청의 도서 1,000여 권 기증, 한국 독서교육 전문가 초청 등 교민 대상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 "아쉬움도 있었다...내년에는 보완하겠다"

그러나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글학교 교원 연구회의 연구 결과 발표가 지연된 점과 일부 사업의 낮은 참여율에 대한 아쉬움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 원장은 "한글학교 교사들이 생업과 봉사를 병행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 기획의 부족이었다"고 말하며 내년에는 절차와 홍보 채널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2026년, 더 넓은 지역으로...“몬태나·아이다호·알래스카까지 간다”

내년도 목표에 대해 그는 교육기관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욱 원장(가운데)과 구광일 영새(왼쪽), 로빈 전 사무관.

서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급 한국어 강의 개설, 중·고등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확대,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강화 등을 한글학교와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문 지역도 확장된다. 올해가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중심 교류였다면, 내년에는 몬태나주, 아이다호주, 알래스카주 등 한인동포 수가 적은 지역까지 직접 방문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 든든한 교육원으로...언론에 깊은 감사"

이 원장은 참석한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였지만, 언론이 저희의 가능성을 믿고 기사를 통해 알려주신 덕분에 교육원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6년에도 올해 못지않은 열정으로 임하겠다"며 "더 정돈되고 든든한 교육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새해 신년사 대신, 설 명절 즈음 직원들과 한복 인사 영상을 준비 중이라는 유쾌한 메시지로 이날 간담회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박재영 기자

J-1 · H2B · EB3

취업스폰서를 모십니다

★ 한국에서 미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고, 현재 사업체 운영에 믿고 신뢰할 직원을 원하십니까? 수시로 직원 부족으로 고용주가 대신 일해야 하는 고민을 글로벌 인재 양성 리쿠르먼트 회사 Entryusa.co 에서 해결해드립니다.

▶ **자격기준:** 현 사업체가 워싱턴주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2년 이상 세금 보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사업체 종류:** 호텔, 식당, 그로서리, 스모크 샵, 세탁소, 유통 회사, 전기 및 전화 회사, 델리 및 제과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미용 및 네일, 스킨케어, 회계사무직, 법률사무직, 요가, 필라테스 강사 등

연락은 먼저 이메일로 해주세요. ▲Email: mynwcf23@gmail.com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을 받은 후 직접 고용주와 대화를 통해서 상의하겠습니다



시애틀 라디오한국
KSUH 1450AM KWYZ 1230AM

워싱턴주 유일의

한국어 방송

라디오한국이
달라져요!

27주년을 맞은 라디오한국이
뉴스, 정보, 음악중심으로
편성표를 대폭 개편합니다!

KSUH 1450 AM
KWYZ 1230 AM
FM 102.1 MHz



Tel 253-815-1212

Email : info@radiohankook.com

31919 1st Ave S, suite 206 Federal Way, WA. 98003



Global Real Estate Express Commercial

Investment Property Sale
and Property Management 전문회사

Commercial 상가, HOTEL, MOTEL

- ▶ Tacoma 9 Unite Asking \$3,150,000
- ▶ Federal Way 15,041 SF Office Building,
병원건물 Asking \$2,800,000

Shelton Super 8 / 39 Rooms

Gross +/- \$1,060,000/2024

Asking \$4,700,000 에서 **\$3.700,000 구매**

After terminating the franchise contract, operating independently results in an annual net income of approximately \$250,000 to \$300,000 프랜차이즈 계약해지후운영하면 net income 약25만에서 30만불 1년수입예상

TERIYAKI / SUSHI

● TERIYAKI / Asking \$570,000

+/- \$3,000/DAY Tacoma Pacific Ave,\$2,600+N.N.N.
\$921 Lease 10/10, Option Term 7days open

● Teriyaki & Sushi / Asking \$175,000

+/- \$1,700/Day Gig Harbor,
현재 \$3,091 / New Lease

세탁소 Asking \$320,000

Gross\$35,000/M. Kirkland 좋은동네
2008년 장비, 직원2명&부부,
은퇴Sale, Rent \$3,600+N.N.N.



GLOBAL R.E. EXPRESS Broker **SANG KYU YI 이상규 206-612-8962**

8544 S TACOMA WAY #B LAKEWOOD, WA 98499 • Real4949@gmail.com

워싱턴주 순찰대 차량 들이받는 사고 잇따라

워싱턴주 피어스 카운티에서 주 순찰대(WSP) 차량이 새벽에 일반 차량에 의해 추돌되는 사고가 발생해 순찰대원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WSP에 따르면 사고는 21일 오전 6시 경, 피어스 카운티 512번 도로 서쪽 방향 차선, 캐년 로드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순찰대원은 도로를 막고 있던 고장 차량을 돕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량에 의해 추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론 와츠 대원은 킹5와의 인터뷰에서 “순찰대원은 경광등을 켜 상태로 순찰차 안에 탑승해 고장 차량을 다음 출구까지 밀어 이동시키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뒤에서 오던 차량이 순찰

차를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으나, 운전 중 주의가 분산된 ‘부주의 운전(distracted driving)’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운전자는 체포되지는 않았으며, 부상을 입은 순찰대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와츠 트루퍼는 “부상당한 대원은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사고 조사로 인해 해당 구간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운전자들에게 우회 운행을 권고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9일 이후 워싱턴주 순찰대원이 차량에 치이거나 추돌당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12월 19일, 타코마 항구 인근 509번 도로 남쪽 방향으로 사고 대응 중이던 타라-마리사 구팅(29) 순찰대원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구팅 대원은 순찰차 밖에 서 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스노쿼미 패스에서 또 다른 사고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순찰대 차량이 대형 트럭에 추돌당해 순찰대원이 부상을 입었다.

와츠 트루퍼는 “구팅 대원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은 타코마 및 피어스 카운티 지역 순찰대원들이 슬픔을 추스릴 수 있도록, 현재는 다른 지역 순찰대원들이 해당 지역 근무를 지원하고



WSP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부상을 입은 순찰대원은 평소 시애틀 및 사우스 킹 카운티 지역에서 근무하던 인원

으로, 동료 지원을 위해 피어스 카운티로 파견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이스애틀뉴스>

Federal Way

병원 스페이스 렌트

253-941-6779

chachiropractic@gmail.com

Office space Rent for

L.Ac, DPT, LMT or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3Tx rooms, Reception area, restroom

Ask for Lease special !

마우스패드칼렌다

Mouse Pad Calendar

매일매일 사용하는 마우스패드 - 책상 위 작은 갤러리 칼렌다!

○ 때가 잘 끼지 않은 마우스패드

○ 디자인 | 셋업: 2~4일 ○ 인쇄: 6~10일

SKU **T8A12846568** ~~\$99~~\$128 / 6 Pcs (8X10 Inch)

SKU **T8A11395424** ~~\$399~~\$450 / 125Pcs (7.25X8 Inch)

○ 배송: 2~6일 ~~\$55~~\$55~\$98



miju
buy ALL PRINT GIFT & AD

미주한인
miJuBU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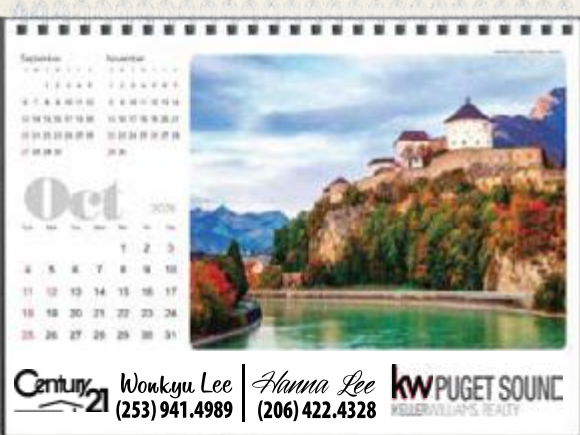
Customer Service - **Seattle**
1 253 941 4989

Free Shipping
for all Orders Over
\$1000 within 48 LS

미주한인 인쇄물 | 판촉물 | 타겟광고용 홍보메거진 미전역 우편발송

WE SHIP ALL PRINT & GIFTS PRODUCTS FROM

NEW YORK, CALIFORNIA, KENTUCKY, TEXAS & SEOUL SINCE 2002



중형탁상용

Desktop Calendars

○ 중형 탁상 칼렌다

(H마트형 9.5인치 사이즈)

○ SKU **M8CC5D11** ○ 14 Sheets

○ 선택가능그림: Travel & Gallery

○ 디자인 | 인쇄 | 배송포함 총경비

~~\$4.50~~\$5.25 Each for 500 Pcs



World 세계경치

Galleria 명화모음

탁상칼렌다 2026 일반용

Standard 8.5Inch Desktop

표준형 하드 이젤식이며, 금박형 | 인쇄형 구조입니다.

가능한 배경이미지는 아래에서 선택하세요.

상호 및 홍보내용은 무료 디자인 드립니다.

그림인쇄&제작(한국) | 로고인쇄(미국)

○ SKU **M8CC5D12**

○ 14 Sheets ○ Wire Bound

○ 75 Lb Gloss Cover

○ Weight: 40 Lb for 100 Pcs Box

○ 디자인 | 셋업: ~~\$25~~\$50~\$350

○ 종이 및 인쇄: 3주 ~~\$890~~\$720 for 200 Pcs

○ UPS 배송: ~~\$95~~\$50~\$135 ○ Envelope: ~~\$0.35~~\$0.28 each



인쇄형

금박형

앞표지면

벽걸이칼렌다 2026 중형 교회용 | 일반용

Standard 11.5 Inch Wall mounted

미국형 표준형 벽걸이형 칼렌다이며, 선택 가능한 배경이미지는 아래에서 선택하세요.

○ SKU: **M8CC5D16**

○ 총 14장, 90Lb유광커버지, 80Lb유광내지

○ Size: 11.5X18" 인쇄: 10.5X1.25"

○ 150개 박스 41Lb, 11x12x12"

○ 디자인 | 셋업: ~~\$35~~\$50~\$150

○ 인쇄: 스프링형 ~~\$3.7~~\$3.7 each/200권

중철형 ~~\$3.1~~\$3.1 each/200권

○ UPS배송: 2~6일, ~~\$75~~\$120~\$155

○ 봉투: ~~\$0.45~~\$0.35 each

성경말씀

Opened



Logo Here

탁상용&벽걸이용으로 가능



World 세계경치

Galleria 명화모음



Puppy 애완견



Golf 골프장



America 미국경치



Vacation 휴양지



Sushi

탁상용만 가능



WORLD TASK FORCE SECURITY COLLEGE

제1기 미국공인탐정면허취득과정 Certified Private Investigator License Course

1. 이 교육과정은 수료증 자격증이 아니라 주정부 공인면허를 취득하는 교육과정이며
2. 발급기관은
State of Washington Department of Licensing - Profession Division 이며
3. 발급명칭은 Private Investigator 입니다.
4. 교육기관은
World Task Force Security College (worldtaskforcesecuritycollege.com)
5.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은 Raven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wfpdici.com)

교육후 주정부면허시험은 WSCJTC 교관와 교육과 함께 치루어지며
합격할때까지 무료로 지원교육을 실시 합니다.



지원자격

1. 미국시민권, 영주권, 노동허가서, 각종비자를 받고
사회보장번호를 소지한자(SSN)
2. 만18세 이상
3. 범죄기록 없는자



Office: (253) 353-3663
Email: worldprivateinvestigation@gmail.com
www.worldtaskforcesecuritycollege.com



시애틀 다운타운서 75세 여성 무차별 폭행...한쪽 눈 실명

- ▶ 42세 남성, 못 박힌 나무판으로 75세 여성 얼굴 가격...한쪽 눈 영구 실명
- ▶ 용의자 올해만 8회 체포됐지만 기소 안 돼...2011년 흥기 난동 전력도
- ▶ 피해자 가족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나"...법원 주변 안전 문제 지속 제기

시애틀 다운타운 킹 카운티 법원 앞에서 75세 노인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올해만 8차례 체포됐지만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상습 폭력범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킹 카운티 검찰이 19일 공개한 영상과 기소장에 따르면, 팔레 바이갈레파 페아(42)는 이달 초 킹 카운티 법원 앞에서 끝에 나사못이 박힌 나무판을 양손으로 휘둘러 피해자 자넷 마켄(75)의 얼굴을 가격했다. ◆ 음식 픽업 나왔다가 한쪽 눈 잃어 마켄은 음식 주문을 픽업하러 나왔다가 이유 없이 공격을 받았

다. 나무판에 박힌 못이 마켄의 눈을 관통했고, 마켄은 19일 해당 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의 아들 안드리우스 디리키스는 "못이 박힌 나무 몽둥이로 전력을 다해 얼굴을 때렸더니,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시애틀 경찰 실시간 범죄 센터 영상에는 목격자가 용의자 사진을 찍고, 다른 사람들이 부상당한 마켄을 돌보는 모습이 담겼다. 킹 카운티 보안관이 3번가와 체리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페아를 제지했다. ◆ "3번가 무차별 폭

행으로 악명 높은 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은 경찰들이 페아를 즉시 알아봤다 "저게 팔레 페아 아냐?" 한 시애틀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에게 묻자 "3번가에서 무차별 폭행으로 악명 높은 놈이야"라는 답이 돌아왔다. 페아는 2011년 시애틀의 한 파티에서 두 명을 칼로 찔러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1건의 폭행 사건이 있었다. 킹 카운티 교도소에 따르면 페아는 올해만 8차례 구금됐지만, 마켄 폭행 사건 이전 올해 체포 건 중 어떤 것도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시애틀 경찰은 올해 페아를



폭행, 음란 노출, 마약, 재산 파괴, 불법 무기 사용 혐의로 여러 번 체포했다. 킹 카운티 검찰은 올해 이전 체포 건 중 어느 것도 중범죄 기소를 위해 검찰에 회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킹 카운티 법원 주변 지역은 수년간 문제가 돼왔다. 공격이 발생한 블록에는 노숙자 시설이 있으며, 올해 초 이 교

차로에서 싸움 중 3명이 충격을 당했다. 2023년에는 길 건너편에서 한 남성이 문에 밀려 사망했다. 페아는 현재 1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달 말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마켄을 위한 GoFundMe는 회복 지원을 위해 거의 3만 달러를 모금했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21일 오전 7시 3분 동지 맞아...이제 해가 조금씩 길어진다

- ▶ 12월 21일, 일조시간 8시간 28분으로 최단
- ▶ 국립기상청 "산악 지역 2피트 폭설 · 해안가 천둥번개 가능성"
- ▶ 1월 25일부터 오후 5시 이후 해 저...새해부터 조금씩 일조시간 증가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은 겨울 동지가 21일 찾아왔다. 겨우 9시간의 일조시간에 우울했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뀐다. 태양이 일 년 중 가장 낮은 지점에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날인 일 년 중 가장 짧은 날이 마침내 다가왔다. 동지가 12월 21일 일요일 오전 7시 3분(태평양 표준시)에 왔다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타코마와 사우스 사운드 지역은 공식적으로 더 긴 낮을 기대할 수 있다.

◆ "정오에 가장 긴 그림자 드리워져" 정오에 밖에 서서 그림자를 보면 일 년 중 어느 때보다 가장 긴 그림자일 것이다. 반대로 하지는는 그림자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립기상청(NWS)은 퓨젓 사운드 주변 지역에

비슷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악 지역 폭설 · 해안가 천둥번개 예보 동지 당일 저지대에서는 최고 기온이 40도 중반대(섭씨 7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산발적인 비와 잦은 바람이 예상된다.

산악 지역 관점에서 NWS 시애틀은 해발 1500피트(약 457m)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밤 사이 스노쿼백 패스와 스티븐스 패스 모두에서 최대 2피트(약 60cm)의 눈이 내릴 수 있다.

NWS는 토요일 아침 보고서에서 "캐스케이드 산맥을 가로질러 여행할 계획이라면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특히 90번 주간고속도로와 12번 국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산사태와 도로 붕괴로 인해

추가 도로 폐쇄가 이미 시행 중이다. 여기에는 스카이크로미시와 레븐워스 사이 2번 국도가 포함된다. 이 지역은 보통 이맘때 유럽풍 알프스 매력으로 관광객들의 천국이다. 한편 해안에서는 일요일까지 천둥번개가 가능하다. 워싱턴 주 서부를 가로지르는 일련의 대기 강(atmospheric river)의 영향이 여전히 주요 관심사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NWS는 이슬비가 "대부분의 지역 하천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치헬리스강과 스코코미시강 일부는 댐 규제가 없어 여전히 홍수 경보 하에 있다. 전문가들은 매우 습한 토양이 가라앉지 않아 적어도 크리스마스 주 시작까지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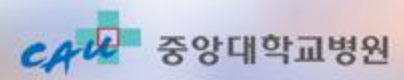
[사진=신문사DB]

사태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 1월 25일부터 오후 5시 이후 해 저 12월 말에 태양이 조금씩 더 오래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토요일에는 약 8시간 28분의 일조시간으로 오후 4시 21분에 해가 졌다. 황혼은 오후 5시 직전에 끝난다. 일요일 동지 당일, 태양은 1분 더 우리를 축복해 오후 4시 22분에 진다. 오후 4시 23분

일몰을 보려면 화요일 밤까지 기다려야 한다. 태양은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오후 4시 30분을 보게 된다. 그리고 1월 25일에는 오후 5시 이후 일몰을 넘어선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이 지역은 이미 더 긴 낮을 만끽하고 있을 것이다. 일조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는 시기는 그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시애틀코리아데일리>

MS MEDIA GROUP CORP.

미디어한국 스포츠서울USA 우먼즈



휴람 - 중앙대학교병원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프로그램

2025.1.1. ~

휴람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휴람 고객을 위한 체류기간 내에 빠른 진료 연계 제공



기본검진



남성검진



여성검진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해외동포특별가 프로그램 혜택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람 기본 항목

프로그램	검사항목
종합검진 기본항목	신체계측, 체성분분석, 안과(안압, 안저, 시력), 청력, 폐기능, 흉부촬영(전면, 측면), 심전도, 혈액형, 일반혈액,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전해질, 당뇨(공복시혈당, 당화혈색소), 매독, 에이즈, 종양표지자(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남], 난소암[여], 유방암[여], 고지혈증, 요산, 갑상선기능, 소변, 식생활평가, 류마티스인자,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액상자궁경부암검사[여], 유방촬영[여], 여성호르몬[여]

휴람 남성 검진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검진가
휴람 남성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1,071,000
휴람 정밀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 뇌MRA, 심장초음파	1,836,000
휴람 VIP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 심장초음파 +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비타민D, 골밀도 + 뇌MRI&뇌MRA, 동맥경화도, 남성호르몬 *픽업서비스(서울시내)	2,979,000
휴람 VVIP 검진 (2일간 진행)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폐MDCT + 심장초음파 + 뇌MRI&뇌MRA,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관상동맥 CT + 비타민D, 골밀도, 동맥경화도, 남성호르몬 + 뇌, 심장 정밀혈액검사, PET-CT(암정밀검사) *픽업서비스(서울시내)	4,622,550

휴람 여성 검진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검진가
휴람 여성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1,098,000
휴람 정밀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 뇌 MRA, 심장초음파	1,863,000
휴람 VIP 종합검진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 심장초음파, 골밀도, 저선량 폐MDCT + 뇌MRI&뇌MRA,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 동맥경화도, 비타민D,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픽업서비스(서울시내)	3,204,000
휴람 VVIP 검진 (2일간 진행)	[휴람기본항목] +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관상동맥 CT + 심장초음파, 골밀도, 저선량 폐MDCT + 뇌MRI&뇌MRA, 복부골반MDCT,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 동맥경화도, 비타민D,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 뇌, 심장 정밀혈액검사, PET-CT(암정밀검사) *픽업서비스(서울시내)	4,847,550

휴람 특화 검진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검사항목	검진가
휴람 뇌건강 검진	혈액검사(당뇨, 고지혈증, 뇌정밀혈액) 경동맥초음파 + 뇌MRI & 뇌MRA + 알츠온 혈액검사 + 도파민 PET-CT	2,562,000
휴람 치매 검진	알츠온 혈액검사 + 뇌MRI & 뇌MRA & 해마 + 아밀로이드 PET-CT	2,230,000
휴람 심혈관 검진	혈액검사(당뇨, 고지혈증, 심장 정밀혈액) + 심전도 + 동맥경화도 + 경동맥초음파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CT	903,000
휴람 유전자검사	뇌질환유전자5종, 심혈관 5종 유전자검사 ※ 치매/심혈관검진 첫 시행 시 필요	각 132,000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Tel : 206-779-5382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 숙박필요시 병원인근숙소 제공 - 제휴 혜택 특별가 제공

교육칼럼



민명기

eWay 학원 원장

머무르는 봄을 지나 봄을 기다리며

지난주 일요일은 12월21일로 동지였다. 한국의 절기로 치면 겨울은 입동인 11월7일 경에 시작되고 봄이 시작되는 입춘인 2월3일경까지 계속된다. 겨울은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인 동지를 기점으로 점점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니 추운 겨울 속에 있지만, 이제 곧 봄이 오리라는 부른 기대를 갖고 모든 일에 임하면 좋을 시기이다.

우리말에서 '겨울'의 이름은 "머무르다"를 뜻하는 옛말 '겨다'에서 변형된 것이라 한다. 겨울에는 추우니 집에 머물라는 뜻이라 한다. 영어로 이 계절을 부르는 이름이 'winter'인데, 이것의 어원 역시 재미 있다. 겨울은 눈으로--물론 시애틀에서는 비로--아주 물기가 많은 계절이다. 그래서 'winter'라는 말은 겨울의 특징인 'wet'과 'water'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라고 한다.

크리스천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지구인들에게 겨울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행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점이다. 이 종교를 믿던 아니던, 집

을 떠났던 많은 자녀들이 돌아와 가족과 함께 재회하며 사랑을 나누는 명절이다. 이 명절에 이런 저런 이유로 비행기나 차 등을 이용해 여행을 하는 이들의 숫자가 올 해 무려1억 2천 2백만명이나 된다고 할 정도로 사람과 사랑이 넘치는 또는 넘치기를 기원한다.

필자의 가정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집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올 해 가을 결혼한 딸 아이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위와 함께 시애틀의 고향 집을 방문했다. 몇 해 전 시애틀로 돌아왔지만 따로 생활하는 아들 녀석까지 모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와 풀 하우스를 이루었다.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집 떠났던 자녀들이 귀향해 함께 있을 동안 '뭘 좀 잘 먹어야 하나'가 큰 걱정/재미 거리 중의 하나이다. 다 큰 아이들이니 타지에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일에서 한 몫을 하고, 자립하여 살다 보니 영양가 있는 식단을 잘 챙겨 먹으며 지내고 있을 터이지만, 부모 특히 엄마의 마음은 항상 다 큰 자식들에게 뭘 해 먹이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예상대로, 아내는 며칠 동안의 식사 메뉴 선정에 고민을 하더니 온, 오프라인에서 장도 보고 주문을 하느라 바쁘다. 당연히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뭘 그리 준비를 하고 그래 바쁜 사람이. 작년에도 잔뜩 준비했다가 아이들이 이태리 음식을 만드는 바람에 나중에 우리 배만 불렀잖아"하며 마음에도 없는 핀잔을 준

다. 이번엔 아내도 지난해의 경험을 기억해 아이들에게 미리 물어 보고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한다고 친절히 대답을 해 준다. 직장일로 바쁘게 고민하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흥겹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차게 변신한 아내를 보며 한국에 계신 어머님들이 어릴 적 우리들에게 하신 같은 모습을 떠올리며 잠시 눈시울이 뜨겁다. 여기에서 더 나가면, 이모 저모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수은주가 격상되지 않겠는가?

아내가 준비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작년처럼 올 해의 성탄절 저녁 식사도 아이들이 팔소매를 걷어 부치고 나선다. 녀석 좋은 아들 녀석, 서툰 한국말로 "아이구, 어머니, 오늘은 누나가 비지 찌개를 준비한답니다"라며 추임새를 준다. 한식 요리에 곁들여 오랫동안 한 잔하는 레드 와인인 메를로도 한 병 준비했다. 별로 쓸일이 없어서인지, 작년에 쓰고 어디로인가 없어져 버린 와인 병 오프너를 찾아 헤매는 아빠를 보다가 아들 녀석이 작년처럼 "아빠 혹시 스위스 나이프 어디에 두셨는지 아세요" 묻는다. 이제서야 작년에도 스위스 나이프에 달린 병마개 따개를 사용한 것이 생각난다. 이런 저런 우여 곡절 끝에 함께 하는 저녁 식사 자리는 오랜만에 풍성하다. 평소엔 허전하게 비어 있었지만, 오늘은 사람들로 꽉찬 다이닝 룸

이 제 구실을 해 뿌듯하다며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전구의 빛에서 나오는 온기로 방 전체를 채워 주는 듯하다. 음식은 물론이지만, 더욱 맛깔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양념이 된 가족간 대화이다. 한자리에 모여 나누는 지난 한 해의 고생담과 무용담들로 가득찬 대화들이 눈치 봄이 없이 오간다. 고생한 대목에서는 "어휴, 오~슈웃"으로 공감하고, 자랑할 만한 일들의 구비에서는 "와아, 굿잡"으로 추임새를 주며 모두의 마음을 위로와 칭찬으로 풍요롭게 채워 준다.

이제 곧 새 해가 다가 온다. 이 글을 읽으시고 며칠 후에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으리라. 올 해는 독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가능한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지금까지 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이고 사용하던 관습을 다시 한 번 뒤돌아 보는 것은 어떨까? 대화를 통해 생각을 정리함과 동시에 가족과 남을 배려하며 나아 가는 새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자녀가 대학을 정할 때, 무조건 랭킹과 세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당한 대학과 전공이 무엇인지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꼼꼼히 나눠 보는 것도 이런 노력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가 추운 겨울 속에 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봄을 기대하며 서로 사랑하면 될 일이다.



큰 뜻과 보람으로 일하기 원하십니까? 대한부인회 간병인(Caregiver) 모집!

경쟁력있는 임금 \$21.49~\$25.39

**좋은 베니핏 - 의료보험, 유급휴가
자유로운 근무 시간 - Full Time, Part Time
근무중 자동차 운행비 지급
경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KWA 본사와 지부에서 신청서 접수와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253)535-4202 / www.kwacares.org/careers**



**<타코마> 실비아 리 (253)319-8646 sli@kwacares.org, 김혜연 (253)319-8652 hykim@kwacares.org
<린우드> 리나 정 (425)790-3565, (253)302-0202 Ichong@kwacares.org
<웨더럴웨이> 이경주 (253)656-3458 klee@kwacares.org, 송영정 (253)656-3445 ysong@kwacares.org**

이성수(수필가)

광천 쪽다리 이야기

아들과 같이 광천 새우젓 관광 가서 광천 쪽 다리를 찾아보려고 수소문하였다. 우리를 안내 주던 새우젓 상회 주인에게 광천 쪽다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웅암포 포구 근처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새우젓 상회를 나오면서 지나가는 70대 할머니에게 "할머니! 광천 쪽다리가 어디쯤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있유!"

우리 일행은 차로 쪽다리를 찾았다. 광천에 있는 다리는 광천교와 웅암교 두 개뿐이었다. 어떤 이는 광천교가 쪽다리라 하고, 어떤 이는 웅암교가 쪽다리라고 하였다. 그것도 40대 이하 사람들은 쪽다리를 물으면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1970년 후반 보령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이 근처가 새로 개발되어 쪽다리가 어디쯤 있는가 찾기가 힘들었다.

안내 지도도 유심히 보고 위치도 상상해 보았다. 아마 웅암포 포구에 어선이 들어오면 어물(魚物)을 떼다가 파는 여자 행상인들이 그릇을 들고 아이 손을 붙잡고 서로 먼저 고기를 사려고 북새통을 이루다가 아이 손을 놓쳐 어린애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 미아(迷兒)가 근처에 있는 쪽다리 밑에 방치되고, 어린애가 귀한 사람들이 버려진 미아를 데려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너 광천 쪽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의 어머니는 광천 쪽다리 밑에서 살고 있어! 너의 어머니한테 데려다 줄까?"

"광천 쪽다리 밑에서 살고 있는 너의 어머니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응석을 부리거나 떼를 쓰는 아이에게 어른들은 이런 농담을 곧잘 하였다. 이런 말을 듣게 된 아이들은 난감하였을 것이다.

아마 충남 장항선 역 주변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60대 이상의 사람이라면 전부 이런 말을 듣고 자랐을 것이다.

난 희미한 기억이지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서운하고 서글펐는지 울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할머니까지 함세하여 어머니 편을 드시니 모든 게 사실 같았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은 친어머니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너는 광천 쪽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너희 어머니가 광천 쪽다리 밑에 살고 있다."라는 말은 실로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대부분 어머니들은 말 안 듣고 이유 없는 반항을 할 때 버릇을 고쳐주려고 이런 말을 한 경우가 많았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듣던 그대로 아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을 하며 키웠다.

지금 그 애들이 60~70대이다. 그 후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해 지금 젊은 세대는 광천 쪽다리란 말 자체를 모른다.

먼 옛날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나 어머니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광천 쪽다리 설화(說話)는 더는 계승을 못하고 없어진 것이 아쉽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어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해도 젊은 엄마의 자식 사랑이 묻어 있었다.

검색을 해보니 쪽다리는 서울에도 많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광천 쪽다리처럼 아이를 주워왔다는 말은 없다. 하지만 부산 영도다리와 경북 영주의 청다리 설화는 광천 설화와 같은 맥(脈)을 가지고 있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아이이다. 지금 그 다리 밑에서 너의 어머니가 살고 있다. 거기 데려다 줄게."를 강조하고 있다. 부산 영도다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 다리는 사람들로 늘 붐벼 미아(迷兒)가 많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자식 없는 사람이 그 아이들을 데려갔을 것이다.

영주 청다리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광천 쪽다리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원래 쪽다리는 나무판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았을 것이다.

영주에는 이조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사립

대학인 유명한 큰 서원(書院)이 있었고 많은 인재를 양성해 냈다고 한다.

서원 근처에는 맑은 하천이 흐르고 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 다리 이름이 '청다리'이고, 여름철이면 경치가 좋아 많은 서원(대학)생들이 모여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남자 서원생들이 모이는 곳에 여자들이 모이게 마련이었고,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가 생기고 그 애를 청다리 밑에 내버렸다고 한다. 이 소문이 나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가 키우게 되었다고 한다.

영주의 청다리와 광천의 쪽다리, 부산 영도다리, 아니 전국 어디나 다리가 있는 곳에서 다리를 중심으로 이런 설화가 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통점으로 '다리 밑에서 아이를 주워왔다'는 설화는 신기하기만 하다. 사람이나 자동차, 우마차(牛馬車)가 건너다니는 교각(橋脚)인 '다리'와 사람의 아랫다리, 즉 하지(下肢)인 '다리(脚)'는 발음은 같으면서 뜻이 다른 동명이의음(同名異意音)이기 때문에 이런 설화가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닐까? 특히 여자의 '다리(脚) 밑(아래)'을 강조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천 쪽다리 밑의 설화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것을 전혀 모르는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무엇인가 하나를 잊어버리고 자라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아 있다.

복음/생명/자유를 공급하는 기드온동족선교는 여러분의 후원참여로 함께 이루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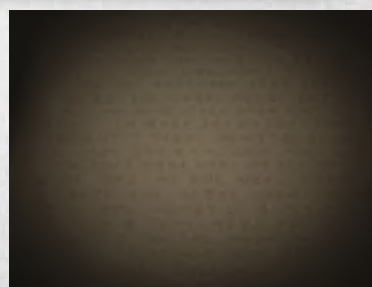


(기드온동족선교회 홈페이지)

- 1) 최근 북한/중국 국경지대 (6월)방문과 선교상황보고
- 2) 지하성도들의 북한군인 전도한 결과 나눔
- 3) 북한이탈주민들의 복년의 가족들 직접지원과 소식 나눔
- 4) 지하성도/영양빵보내기/한국과 미국의 탈북가족들/탈북신학생 지원
- 5) 5차 글로벌복음통일컨퍼런스_방콕2024 개최안내



(선교후원하기 큐알코드)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지나 채
킹카운티 멘탈 헬스 카운슬러

〈지난 호에 이어〉
그로부터 몇 개월을 캘리포니아로 오가며 무릎에 내 무릎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다시 주입하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데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과정이 너무 아팠다.
불안했던 점은 그 씩씩한 보조 의사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이미 이쪽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진 줄기세포 전문가 의사의 주사바늘을 쥐는 손이 후들후들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마취 없이 치료 중이라) 나이 탓으로...
치료를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불신이 생기게 되었다.
의사는 힘이 약해서인지 내 무릎을 한 번에 찌르지 못하고 서너 번 이곳저곳을 찌르고 난 후에 줄기세포를 주입했었다.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주사바늘은 보통 주사바늘의 세 배나 길고 두꺼웠는데 바늘이 내 무릎 관절을 찌를 때 얼마나 아픈지 눈물을 쫓 빼고는 했다.
시술은 두 주의 간격을 두고 세 번씩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의사의 후들거리는 모습에 겁이 난 나는 두 번째 시술에는 미리 이곳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그 후들거리는 담당 의사는 불안하니 젊고 씩씩한 의사가 치료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치료는 그 후들거리는 의사는 옆에 있고 젊고 씩씩한 의사가 치료를 시작하였다.
와우! 줄기세포 치료 후 3주나 6주 동안 움직

이지 말라는 의사의 처방으로 운동을 할 수 없던 내 무릎 관절이 그야말로 돌처럼 굳어버려 이제는 아예 목발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다.
그래도 줄기세포 의사의 처방을 100퍼센트 신뢰를 하며 6주간 누워만 있었다.
줄기세포가 활성화하려면 심한 움직임은 피해야 한다고 해서...
6주 동안은 병상에서처럼 누워 있기만 해야 했으니 내 무릎뿐만 아니라 허벅지, 종아리 살은 다 빠져나가고(가늘고 여러여리한 다리가 되어 있었다)
이때부터 나의 무릎의 더욱 길어진 통증의 고난이 시작이 되면서 2년간 더 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줄기세포 시술 이후 완치가 된 사람도 있었다는데 어찌 된 일인지 나의 무릎은 전혀 반응이 오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너무 예쁜 지역이었다) 스페인풍의 하얀색들의 집들과 맑은 하늘과 시원하게 펼쳐진 태평양 바다, 이곳에 자리 잡은 작은 병원이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다’는 말처럼 나는 무릎 통증에 전혀 진전이 없자 의사의 처방대로 PRP라는 치료를 더 받게 되었는데 이미 지불한 거금 이외에 더 많은 돈이 지불되었다.
물론 PRP 시술은 보조제(촉진제)였다는데 웬 일인지 내 무릎 통증은 더 심해지고 운동을 못하게 한 내 다리는 아예 힘이 없어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Regret(후회) 2

이미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는 물 건너간 것이었다.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해 둔 거금이 줄기세포 치료로 빠져나가고 나의 다리 통증은 예전보다 더 아프면서 또다시 고개를 숙이며 정형외과를 찾아가니(의사는 줄기세포 치료를 아직 믿을 수 없으면서 만류했었다)
줄기세포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이었다.
무릎 통증이 줄기세포 치료 후에도 낫질 않으니 다시 찾은 정형외과 의사의 권고를 받고 무릎 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무릎 양쪽이면 2만 불, 그리고 한국은 무릎 수술 후 3주간의 입원을 시켜서 무릎 재활 운동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곳은 보험 처리가 되니 내가 20퍼센트만 내면 되는데 이곳은 무릎 관절 수술 한쪽에 6만 5천 불이니 두 무릎 다 하면 12만 불에서 내가 20%를 낸다면 한국에서 수술받고 온전히 재활 치료까지 받고 오는 게 더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이곳 사무실에 꼭 있어야만 할 일이 때문에 결국 이곳 시애틀 유덥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내가 잘못했던 점, 후회가 되는 점이
무릎 한쪽을 먼저 하고 1년쯤 지난 후에 왼쪽 무릎을 수술했어야 하는데, 줄기세포 치료하느라 다 써버린 나의 병가 기간 때문(400여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에 두 무릎을 한쪽은 6월에, 다른 무릎은 8월에 받기로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오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으로 복용하게 된 통증 약, 염증 완화제, 두 약들의 영향으로 소화가 안 되니 소화제 약들로

인하여 화장실 출입이 어려우니 변비 치료제, 아파서 누워만 있으니 정신적인 허탈감에 오는 항우울제 등등 10개가 넘는 약들을 복용하려니 이러다가 내가 약물 중독이 될까 걱정이 되어 약을 하나씩 줄여 가니 이미 몇 달간의 약물 복용으로 약해지고 상한 나의 위에서는 살려달라는 아우성이고...
이미 약들로 인하여 내 위의 좋은 박테리아는 전멸 상태라 약한 감기조차 몸에서 이겨 내지 못하여 금방 폐렴이 되고, 위는 여러 약들로 인하여 상하여져서 죽도 소화를 못 시키니 내 몸의 살은 다 빠져나가고...
오른쪽 무릎 수술 후 5개월, 왼쪽 무릎 수술 후 3개월, 아직도 통증이 와서 아프지만 이미 통증 약은 끊어버렸고 지금은 왼쪽 무릎의 염증 때문에 염증 약만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복용했던 그 많은 약들에 대한 후유증으로 나는 몸이 금방 상하게 돼서 식사를 하기만 하면 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몸이 아주 차가워지기까지 한다.
친하게 지내는 자연치료요법 친구 의사와 상담을 하니 햇빛을 많이 쬐고 위를 보호하는 프로바이오틱 음식을 먹고(필요하면 프로바이오틱 보조제도 함께) 강황에 있는 면역 성분이 필요하니 강황을 사용해서 요리해 먹으라며 준비해 주었다.
두 무릎 수술(어쩌면 굉장히 큰 수술인데)을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함께 수술하게 된 것을 후회해 본 시간이었다.
자! 후회를 오래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나 해결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지.

안정된 회사, 유능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쉬어집니다.

IRA / Roth IRA / 401(K) *
뮤추얼 펀드 / Brokerage Account *
평생연금 - Annuity **
은퇴계획 - Retirement Plans
상속계획 - Estate Planning
개인&비즈니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for Personal & Business
간병보험 - Long Term Care
생명보험을 활용한 학자금 플랜-College Funding using Life Insurance

* products offered through Registered of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and a New York Life Company.
** Issued by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The Million Dollar Round Table (MDRT), The Premier Association of Financial Professionals, is recognized globally as the standard of excellence for life insurance sales performance in th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dustry.



178년 역사의 뉴욕라이프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김수현 (BILL "SUHYUN" KIM)

Registered Representative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Agent

Mobile 253 802 2550

* Registered Representative offering investments through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증권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 가능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종교칼럼



저자 나은혜

유대인의 왕

(마 2: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운명하실 때에도 십자가 위의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였다.(마 27:37) 예수님의 모든 말씀엔 왕적인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있어서 질병들은 물론 귀신도 벌벌 떨면서 쫓겨났다. 뿐 아니라 바다도 바람도 복종하였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사하는 권능”(마 9:6)을 가지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크리스천인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구약의 첫 질문은 죄를 짓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라는 말씀이고, 신약의 첫 질문은 그와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과 구원을 찾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씀이다. 이 두 질문이 구약과 신약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

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찾아오시며 돌아오라고 하신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도 ‘돌아와라’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인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신약은 새 세계가 열렸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중보자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시매 마침내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이 산 넘고 물 건너 멀고 먼 길을 사양치 않고 찾고 또 찾아와 메시아를 만난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요 1:41; 4:29)! 이 얼마나 복된 외침인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외쳤고 구원의 큰 감격 속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았다.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나심을 알았다. 하나님은 별에도, 자연 만물에도 다 기록해 놓으셨다. 인간들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읽어 내지 못할 뿐이다. 세상에 ‘우연(偶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그 무엇에서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다 완전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도 엉뚱한 실수를 저질렀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

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다. 계시를 따라서 잘 찾아왔던 박사들의 이 잘못으로 인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고, 베들레헴의 두 살 아래 사내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큰 불행이 발생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건만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무덤에 가서 죽은 이를 찾았다. 그래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눅 24:4~5)라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헛발질이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선민의 왕이시라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선민에게 배척을 받으신 왕이시라는 상반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이 아이러니요, 역설(paradox, 逆說)이다.
누가 참 유대인인가?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이런 사람들을 장차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벧전 2:9)이라고 했다.
유대인의 왕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강 같은 평화와 흐르고 샘솟는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희열이 넘친다. 천국이 임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
요즘의 세계 학자들의 일부가 에덴동산은 백두산(창 2:8)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다.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한국 신라 시대의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라고도 한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동쪽 끝은 한국이다. 동방에서 박사님들이 왔다면 한국밖에 더 있을까 싶다. 한국의 우리 옛 조상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표적이 고인돌로 많이 나타나 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넘겨주며 이르게 하였느냐”(사 41:2)?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사 41:25).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독수리)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를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사 46:11). 동방박사를, 한국을 마지막 때에 추수꾼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뜨거워진다.
우리 가정에서, 아니 동방인 한국에서 아기께 귀한 보배를 바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귀한 동방박사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드린다.



레이븐 경비회사/ 레이븐 공인탐정사

현재 호텔/모텔/상가/건물/빌딩 관리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문제가 있으신가요?

민사 · 형사소송 사건증거수집업무

배우자

종업원

개인 신원조회업무

학력

범죄

레이븐 공인탐정사에서는 24시간안에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못 찾을 시 의뢰비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레이븐경비회사로 연락주세요.

Tel: 253.353.3663 / Web : WFPDICI.com

RAVEN LEGAL TASK FORCE
RAVEN SECURITY ENFORCEMENT AGENCY #858
ARMED SECURITY PRINCIPAL #79760
RAVEN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2037
RAVEN ARMED PRIVATE INVESTIGATOR PRINCIPAL #4036

'청년 당뇨' 경계령...2030세대도 안심할 수 없어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당뇨병은 주로 중년층에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 2030세대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청년 당뇨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 양지병원 내분비내과 윤태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진료실에서 20~30대 젊은 당뇨병 환자를 진단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 이상을 확인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병 진단에 큰 충격을 받은 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대 당뇨병 환자는 최근 5년 새 약 50% 가까이 늘었고, 30대 환자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당뇨병은 과거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질환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에서도 적극적인 경계가 필요한 질환이 되었다.

청년 당뇨는 발병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피로, 체중 변화, 갈증 같은 당뇨 초기 증상을 단순 스트레스나 피로로 오인하기 쉽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층이 병을 방치하다가 중증 단계에서 병원을 찾게 된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고,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등 다른 대사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합병증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20대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60대에 발병한 환자보다 더 오랜 기간 고



혈당 상태에 노출돼, 망막병증·신장병증·심근경색·뇌졸중 등 합병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실제 청년 당뇨 환자의 75%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을, 35%는 고혈압을 동반하는 등 '대사증후군형 당뇨'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당뇨병 급증의 주요 원인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정제당 과다 섭취다. 배달 음식, 편의점 간편식, 액상과당이 들어간 고당도 음료 섭취가 늘어나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로 슈거(Zero Sugar)'에 대한 맹신도 위험하다. 제로 제품에도 말티톨 같은 당알코올이 포함

돼 있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며, 건강식품으로 착각해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식습관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설탕과 밀가루 중심의 식습관에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더해져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생활습관 점검이 필수적이다. 고칼로리·고지방 식단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 채소,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또한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체중을 감량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과체중이거

나 가족력이 있다면 20대부터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 당뇨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급변한 사회 환경이 만든 사회적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젊은 환자의 경우,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부담감과 바쁜 사회생활과의 충돌, 직장 내 눈치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려면 모바일·웨어러블 기반의 맞춤형 관리 시스템과 연속혈당측정기(CGM) 보험 확대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30세대 역시 젊다는 이유로 자신의 건강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당뇨병은 증상 없이 다가오는 '조용한 살인자'와도 같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고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당뇨병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 도움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내분비내과 윤태관 전문의

“청년 당뇨 경계령...2030세대도 안심할 수 없어”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에스더 나 이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 선정·진료 예약·치료·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206-779-5382(에스더 나 이사)



김용석 (Bruce Yongsuk Kim)

Agent,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Cell. (206) 371-4620

Email. ykim13@ft.newyorklife.com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중서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중문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SMRU1877550 ©2017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51 Madison Avenue, NY, NY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도나 안내서는
필요없습니다.

평생연금* 은퇴계획 상속계획
생명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

**가장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은퇴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Insure. Prepare. Retire.

Be good at life.



늘 [Koreatown] 이

먼저였습니다



늘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엘에이, 뉴욕, 시애틀, 하와이, 애틀랜타,

우리가 있는 곳이면

늘 한인사회를 먼저 생각했던 당신,

이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